주요 언론보도

〔2016.3.28(월) 보도기획담당관〕

□ TV 방송

○ M B C

- 고병원성 AI 확진, 경기도 내 오리류 반출금지 (정오뉴스, 이브닝뉴스)

○ O B S

- '고병원성 AI' 이천 오리 이동중지명령 (OBS뉴스)

○ M B N

- 경기 이천 AI 발생…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뉴스와이드)

○ Y T N

- 4개월 만에 AI 발생, 가금류 수출도 비상

○ 연합뉴스 TV

- 경기도 AI 발생 '오리류 반출 금지'

□ 라디오 방송

○ 경기방송

- 경기 이천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 이천 종오리 농장 'AI 확진 '...경기도 이동중지명령
-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인사관련 재심 청구 할 듯
- 도내 인쇄업계 "경기도 자체 발간실 폐지.축소해야"
- "자전거 타고 DMZ 달려요"...4월 참가희망자 모집

○ 경인방송

- 이천 오리농가서 AI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 올해 제안창조오디션 3회로 확대
- 제8회 DMZ다큐영화제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참가자 모집
- 경기도, 2층버스 성능 개선 추진..."현장 목소리 반영"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 활동 교육과정 개설
- 경기도농기원, 우수농업기술 설명회...5개 특허기술 소개

□ 중 앙 지

○ 조선일보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해
- 경기 북부~서울 자전거길 잇는다

○ 동아일보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피해 직접 보상을”
-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한다
- “아동학대 사회적 비용 年76조… GDP의 5%”
- “경기도 24개 공공기관, 12개로 통폐합해야”
- 경기도 누리과정 준예산 바닥 9개시군 어린이집 운영비 못줘

○ 국민일보

- 평화 염원 DMZ 자전거 투어
- 지자체 ‘아동학대 전염병’ 퇴치전

○ 한겨레신문

- 세월호 2차 청문회 오늘부터 탈출 막은 선내방송 누가? 왜? 규명 촉각
- 살아가는 매순간 네가 그립다고…유족과 친구들 함께 울다
- 비무장지대 달려보실래요
- 올해 첫 AI 발생...경기도 내 오리 반출 금지
- 청년수당에 힘실어 주는 ‘금수저론’

○ 경향신문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해
-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
- 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 명령

○ 한국일보

- AI 청정국 회복 26일 만에 이천서 재발... 가금류 수출길 또 막힐 듯
- “고구마에 항산화 작용”...의약품 혼동 우려 없다면 과장 광고 아니다

○ 세계일보

- 아동학대가 주는 손실... 사회적 비용 연간 최대 76조
- 유족 "우리 애도 대학생 됐을텐데" 눈물
- 통일 염원 안고... ’두 바퀴’로 달린 DMZ

○ 서울신문
- AI 청정국 회복 한 달도 안 돼… 이천 오리농장 확진

□ 경 제 지

○ 매일경제
- 당정, 누리과정 특별법 추진 정부-지차체 갈등 해소 전망

○ 서울경제
- 경기농기원,농산물 가공기술 이전 설명회
- 경기중기센터 'ICT 융합 분야' 세미나
- 경기도 "고구마에 항산화 성분... 허위 광고 아냐"

○ 파이낸셜뉴스
- 개성공단 유동자산 피해 정부가 직접 보전
- 산하기관장에 甲질하는 경기도

□ 지 방 지

○ 경인일보
- 경기과기원 포함 6곳 폐지 '칼바람'
- 이천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차단 비상'
- 경기도지사.인천시장.교육감 재산 증가
- 인쇄 中企 "광역지자체 자체 발간실 폐지해야"
- 도장애인체육회 역량강화 교육
- 경기체고 도학생체전 잇단 금펀치
- [사설]이천서 오리 AI(고병원성)확진, 확산방지 비상
- 문닫힌 캠퍼스에 문화의 문 열리다
- 1기 경기 영아티스트' 박진형군 중앙음악콩쿠르 우승 '지원 성과'
- 경기도박물관, 토요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경기콘진원 '게임커넥션 아메리카'서 1042만불 계약
- 성남소방서 '종합평가 으뜸'
- 사상 첫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누리과정 해결부터" 연기요구
- 화약고' 방치... 11년 지나도 깨지지않는 '유리방'

○ 경기일보
- 또 AI에 뚫린 경기도

- "道 24개 산하기관 13개로 통폐합해야”
- 준예산 바닥난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현 우려
- 道 ’제안창조오디션’ 확대 올해 3차례 실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강좌’ 참가하세요
- 남지사 34억5천여만원… 전년比 8천만원↑
- 복지시설 종사자 ’저금리’ 혜택
- "또…자식같은 가축 죽여야" 농민의 절규
- 도청 자체발간실 때문에…영세 인쇄업체 ‘관공서 일감’ 씨말랐다
- 6차산업 사업자 등 참석…판로개척 박람회 성공개최 논의
- 옛 서울대 농생대, ’생태·예술공간’으로 변신
- 박진형군 중앙콩쿠르 1위 빛났다
- 성남소방서, 경기도 종합평가 1위
- 포괄간호서비스 도내 6개 공공병원서 받는다
- 경기체고, 고등부 ’주먹왕’
- 道장애인체육회 제1차 직원역량강화교육
- 道체육회 ‘경기도요트학교’ 운영
- [천자춘추] 공공뮤지엄 경영합리화 문제
- [사설] 道, AI 특별 방역 기간 중에 뚫렸다

○ **중부일보**

- 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경기연정 시험대 올랐다
- 제품강매 갑질 논란 오토데스크 道불공정거래 조사 경고성 발언
- 200명 라이더 북적... DMZ 자전거투어 성황
- 도내 시장·군수 60% 재산 증가... 정찬민, 4억7천만원 늘어
- 남경필 지사의 파안대소
- 道, 인사권 남용 구리시 간부 5명 중징계 요구
- 당정, 누리과정 정부 지원예산 지자체 용도변경 막는 법 제정
- 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경기연정 시험대 올랐다
- 지자체 발간실 대형화... 지역 인쇄업체 경영난
- 농기원, DMZ 곤충자원 특별전시회
- 지방 관리서 조선 최고 문벌로... 문·무 급제자 441명 배출
- 도장애인체육회, 제1차 직원역량 강화교육

- 경기도청, 5승 6패 '공동 7위'
- 유예은·이주희, 여중·여초부 4관왕
- 왕영건, 중등부 48㎏급 제패
-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커넥션 아메리카서 120억 실적
- 道박물관, 초등생 4~6학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집
- 박진형 제1기 경기 영아티스트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 [기자 메모]대부업 증가, 금융안전망 필요
- 입주자대표 구성전에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
- 이천 오리농장 AI 발생... 확산 저지 초비상
- 피부에 좋은 고구마'... 과장광고 아니다
- 성남 등 9개 시·군 누리예산 바닥... 어린이집 지원 끊겼다
- 도의료원 수원병원 리모델링 공사 '잡음'
- 북부소방본부, 119 간부 비판 인터넷 게시판 익명 글 진상조사
- 경기북부청, 치안행정 본격 스타트

○ **경기신문**

- 道 산하 공공기관 13곳으로 축소
- 순직소방관 가족과 인사나누는 남 지사
- 도내 시장·군수 재산↑... 이현호 도의원 122억 최고
- 道, 제안창조오디션 3회로 확대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서 30일 개막... 규모 2배 '껑충'
- 도체육회, 요트학교 운영...해양레저 발전 주도
- 도장애인체육회, 양평서 직원역량강화교육 가져
- 원로체육인 "전국체전 15연패 달성 위해 힘 모으자"
- 이유성, 도학생체전 복싱 중등부 60㎏급 정상
- 이천서 1년여 만에 또 AI 발생... 확산 저지 총력전
- 朴 대통령 "경기북부경찰청, 北 도발·테러 철저한 대비 갖춰야"
-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 수원지검, 외부위원 9명 위촉
- 道 9개 시·군, 어린이집 운영비 '한 푼도 못줬다'

○ **기호일보**

- 도 산하기관 절반 구조조정 수순밟나
- 이천서 AI… 도내 오리류 이동금지
- 이천 오리농가 AI 확진… 도내 가금류 이동제한

- 인쇄업 고사 위기인데… 도,자체 발간실 운영 필요한가
- 도민 '정책 소통의 장' 확대
- 경기북부 더 촘촘해진 치안망 기대
- 따복센터,도민교육프로 마련…내달 11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 도내 시장·군수 60% 재산 늘어
- 인력·기능 재배치 기능 효율화… 일부 기관 추진사업 중단될라 우려감
- 도내 9개 시·군 누리예산 소진… 보육대란 빨간불 켜졌다
-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 파주 임진강서 씽씽 달렸네
- 여주시 닥터헬기 시민 이용 최선
- 최고의 실력 발휘 '영아티스트' 덕
- 경기도학생체전 복싱 결승전 수일중 이유성 60㎏급 금메달
- 도지사배 승마 경주 3만여 명 환호
- 2017 경기도자비엔날레,미국도자교육평의회 후원 받는다

○ **인천일보**

- 道 다시 '보육대란'
- 道 고위공직자 재산 늘었다
- 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칼바람 몰아친다
- 브라보 마이라이프' 공연격려 메시지
- 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강자 개설…참가자 모집
- 국민제안 오디션 연 3회로 확대 개최
- [사설]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 수원지검 '법사랑 정책위' 확대 개편
- 이천 농가 확진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비상'

□ 통 신 사

○ **연합뉴스**

- 농식품부 "AI로 가금제품 홍콩 수출에 차질"
- 승마 대중화...국산 말 11마리 과천서 경주
- 자전거 타고 DMZ 달리며 봄 정취 만끽
- "AI 확산 막아라"...이천시 전역으로 방역 확대
- 인접지역 AI 발생...충북도 긴장 속 '차단 방역' 강화
- 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 이천 종오리 농장서 AI 발생...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명령'(종합)
- 고구마 항산화 성분 있다'...경기도 "허위광고 아냐"
-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서 30일 개막
- 누리예산 바닥...경기 10개 시·군 어린이집 지원 끊겨
- "경기도 산하기관 24→13개 통폐합"...경영합리화 용역
- 인사권 남용'...경기도, 구리시 간부 5명 중징계 요구

○ **뉴시스**

- AI 발생 경기도산 가금제품 홍콩 수출 무산
- 수원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차질 없이 지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해당 기관 불만 고조
- 경기도 따복지원센터, 교육강좌 참가자 모집
- 경기 이천 AI 확산 저지 초비상...가금류 수출길 막혀
- 의약품 혼동 우려 없는 제품 홍보에 영업정지는 위법·부당
- 수천만원 걸린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3번 열린다
- 경기도, 내달 1일 의정부서 나무 무료나눔 행사
- 경기농업기술원, 29일 우수농업 특허기술 설명회
- 경기재난본부, 안전 위협 불법 200여건 적발
- 경기 이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당국 '비상'
- 경기도 공공기관 지각변동...인력·기능 전면 재배치
- 교육부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비판 동영상 송출 중단" 촉구
- 경기 이천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25개→13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식 참석한 박 대통령

○ **뉴스1**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교육강좌 참가자 모집
- 경기도, '2층버스 성능개선' 추진...환풍구 설치 등 추진
- 경기도, '환승할인제 용역' 추진...'손실율 추가 인하' 추진
- 인쇄대기업' 된 지자체...中企 "영역 침범·경영난 가중"
- 제1기 경기영아티스트 박진형군 중앙콩쿠르 1위 올라
-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 대회' 3회로 확대...5월 첫 개최
- 경기 AI 발생에 제주도 '긴장'...수도권 닭·오리 반입 금지
- AI 발생 농장 오리 1만1천여首 전량 매몰 처리

- 이천 종오리 농가 AI 고병원성 확인...살처분 준비(종합)

MBC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고병원성 AI 확진, 경기도 내 오리류 반출금지

[이브닝뉴스]경기도 이천의 한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경기도 내 관련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0시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경기도 내 오리 농장과 도축장, 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2일까지 오리와 알을 다른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현주)

14.4 X 5.2 cm

OBS NEW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고병원성 AI' 이천 오리 이동중지명령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에 있는 오리류와 관련 차량, 작업장 등 6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늘 정오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독과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 따라 반출 금지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전국에 있는 가금류 판매소 등을 일제히 소독할 방침입니다.

고영규 midusyk@obs.co.kr

14.4 X 5.2 cm

MBN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 이천 AI 발생...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 앵커멘트 】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7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생산한 가금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 한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 1천여 마리가 곧바로 살처분 매몰됐습니다.

이천시는 이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를 보호지역, 10km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경기도에 있는 오리류와 관련된 차량과 작업장 등 6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내일 정오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이천에서 충북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 앙성과 음성 감곡에도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AI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제주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14.4 X 14.4 cm

YTN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4개월 만에 AI 발생, 가금류 수출도 비상

[앵커]

지난해 11월 이후 잠잠했던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물론 가금류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이달 초부터 홍콩으로 가금류 수출이 재개됐는데, 당장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오리 농장에서 4개월 만에 다시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천시청에 설치된 상황실을 들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AI가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금년도 2월에 청정국가 선언했는데 이렇게 AI가 발생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당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오리 만 9백여 마리에 대해 매몰처분이 이뤄지고 있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오리류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반출 금지 기간 연장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AI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홍콩으로 가금류 수출을 재개한 직후에 발생한 터라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달 동안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우리나라는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고, 이달 초 홍콩과 가금류 수출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AI 발생으로 가금류 홍콩 수출길이 다시 막힘은 물론 축산 분야 수출 10억 불 달성이란 정부 올해 목표치 또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14.4 X 15.1 cm

사람 그리고 사람
TV조선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이천 AI 확진...오리 매몰 처분



[앵커]
경기도 이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육 중이던 오리를 매몰 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시의 한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되찾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AI가 발생한 겁니다.

이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만 천여 마리가 곧바로 살처분 매몰됐고, 이천시는 이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를 보호지역, 10km 이내는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이천시 AI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가금사육 농장과 축산 시설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경기도에 있는 오리류와 관련된 차량과 작업장 등 6천 4백 곳을 대상으로 내일 정오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AI 확산 공포감에 전국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천과 인접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제주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계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

99.9 경기방송

2016년 03월 26일 (토)
종합

경기 이천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KFM경기방송=박상욱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이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00여마리를 즉시 살처분해 매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 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철저한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등으로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7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이천 종오리 농장 'AI 확진 '...경기도 이동중지 명령

[KFM 경기방송 = 윤상식 기자] 이천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천4백여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지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와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반출금지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천시는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만 천6백여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윤상식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8.6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인사관련 재심 청구 할 듯

[KFM 경기방송 = 엄인용 기자]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중징계 요구에 대해 재심을 청구 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시장권한대행은 "수차례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행자부도 관련 규정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그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부단체장은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중징계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인용 umiy@naver.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3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도내 인쇄업계 "경기도 자체 발간실 폐지.축소해야"

[앵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11곳이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쇄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도 자체 발간실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자영 기잡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1개 지자체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지자체가 발간하는 인쇄물은 최근 3년간 38억원, 이 중 경기도는 12억원으로 3분의 1에 달합니다.

자체 발간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쇄소로, 지자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쇄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발간실의 평균 근로자 수는 경기가 10.3명, 대전·광주가 7명으로 인쇄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 3.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보유한 인쇄장비는 6.6대로 인쇄기업 평균보유대수 1.7대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도내 인쇄업계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 발간실이 대형 인쇄기업화 되면서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완표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아주 소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쇄물이다. 우리 인쇄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대전,전북,광주는 전체 인쇄물의 40% 이상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9개 광역지자체의 자체발간실 예산 가운데 68%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당장 발간실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에 비해 자체발간예산이 9%정도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자체 발간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번 기업인들 간담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체 발간실 폐지 요구.

도내 인쇄업계는 이번 만큼은 경기도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안자영입니다.
안자영 ajy790322@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99.9 경기방송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자전거 타고 DMZ 달려요"...4월 참가희망자 모집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 임진각에서 올해 첫 '비무장지대 자전거 투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도는 2010년부터 매년 5차례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오전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리며 봄 정취를 만끽했고,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에 진행됩니다.

4월 참가 희망자는 4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7.9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3월 26일 (토)
종합

이천 오리농가서 AI 바이러스 검출



이천에 있는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23일 이천 종오리 사육농가 시료를 채취해 종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란이 폐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26일) 쯤 나올 예정입니다.

AI 바이러스 검출은 3개월간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약 1개월 만입니다.

이 농가에는 오리 1만9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ds@ifm.kr

14.4 X 14.5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올해 제안창조오디션 3회로 확대



경기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 형식의 제안공모를 3회로 확대한다. 사진은 '슈퍼맨 창조오디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 형식의 제안공모를 3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안 창조 오디션의 성과가 좋은데 따른 것으로, 올해 첫 오디션은 5월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디션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제를 제시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첫 번째 주제는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개를 선정했습니다.

응모는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List.jsp?flag=Y&)또는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에서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에 반영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천675건의 도민 제안을 접수 받아 이중 14건은 정책에 반영했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FM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제8회 DMZ다큐영화제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참가자 모집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DMZ국제다큐영화제 앵콜상영전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워크숍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교하도서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등 6개 기관별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다큐멘터리 기획과 제작 수업, 캠프,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되며, 완성된 수료작은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면 이달 내에 6개 지역별 미디어센터나 청소년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오는 9월 22일~29일 열릴 예정입니다.
kds@ifm.kr

14.4 X 17.9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2층버스 성능 개선 추진...”현장 목소리 반영”



경기도가 2층 버스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버스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2층 광역버스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버스 성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남경필 도지사 주관 2층버스.따복버스 기사 초청 오찬 건의사항과 21일 도지사 주재 주간정책회의 주문 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입니다.

도는 우선 2층버스 차량 세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유리창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고압 세척기를 구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군, 버스업체와 협의해 일반버스와 2층버스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세차기도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입해 운행중인 2층 버스의 경우 통유리로 제작돼 차내 환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5월 중순까지 2층 뒷자석 측면유리를 제작사와 협력해 창문 설치 유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추가 도입되는 차량에는 천장 환풍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행 중인 2층버스에 적용하기 어려운 운전석 공간 확장과 차량 내외부 CCTV 추가 등은 후속차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밖에 정책 현장에서 도민과 만나는 2층버스, 따복버스 기사 가운데 모범 기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 활동 교육 과정 개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참가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합니다.

개설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성장을 위한 '터 무늬학교',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모.떠.꿈 워크숍', 마을 만들기 기초교육인 '찾아가는 마을학교'와 '마을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이 중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과 지역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기초교육으로,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강좌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ds@ifm.kr

14.4 X 18.8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농기원, 우수농업기술 설명회...5개 특허기술 소개

Global Inspiration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9일 도와 시.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우수농업기술 설명회를 엽니다.

우수농업기술은 ▲허브쿠키.파이 제조기술 ▲쌀 발효액 이용 쌀빵 제조기술 ▲버섯가공품 제조와 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연성분 함유 기능성소금 제조기술 ▲연성분 함유 팥앙금 제조기술 등 5가지 특허기술입니다.

설명회는 연구개발자가 수요업체에 해당 기술을 직접 설명한 후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도 농기원은 개발 제품 전시와 시음, 시식 행사를 병행해 기술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참가문의는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마케팅팀(031-229-6116)으로 하면 됩니다.
kds@ifm.kr

14.4 X 12.3 cm

朝鮮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0면 사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해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실시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처럼 아동학대사건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 신청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자녀양육 안내 프로그램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재판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이혼 부부는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중단된다.

아동 학대 방지 교육에는 이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여러 유형의 학대와 그 예방법이 담긴다.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방치 등 정신적 폭력도 학대라는 점을 주지시킬 방침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또 이혼 후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양육권이 없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면접 등을 통해 자녀가 학대받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교육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이혼 사유에 '배우자 폭력'이 포함돼 있으면 각 재판부가 자녀 학대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의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혼 과정에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아동 학대 피해자 10명 중 4명(40.4%)이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 자녀였다.

구체적인 예방 교육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이 대법원 산하 연구단체인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만든다. 서울가정법원은 성과가 좋으면, 전국 모든 법원에 이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신수지 기자

11.3 X 12.9 cm

朝鮮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전국

경기 북부~서울 자전거길 잇는다

고양·양주·의정부·포천·남양주·구리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과 서울 한강변 북쪽 구간을 잇는 '경기 북부 순환 자전거길'이 올해 완성된다. 경기도는 2013년 11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별로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구간(총 27.7㎞)의 공사를 오는 6월에 시작해 연말에 끝낼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경기 북부 6개 지역과 공릉천·창릉천·중랑천·백석천·왕숙천 등 주로 하천 구간에 설치된 서울의 자전거 길이 고리 모양으로 이어진다. 총 길이는 130㎞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 경기 북부의 신도시와 생태·문화·관광지를 연계한 친환경 자연 체감형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면서 "1박2일 자전거 여행 코스로도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권상은 기자

5.5 X 10.3 cm

東亞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08면 종합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피해 직접 보상을"

정부 "실태 조사뒤 불가피할 때만"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구제를 종전과 같은 대출이 아닌 직접 보전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불가피한 범위에 한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피해보전 방식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피해보전이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유동자산은 경협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입주기업 가운데 유동자산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1곳도 없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14.4 X 7.8 cm

東亞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2면 사회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한다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의무화
재판이혼 부부까지 교육대상 확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 '사후 관리'를 주로 했던 법원이 양육법을 적극 알리는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실시해 오던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대상을 재판상 이혼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대 아동의 40.4%는 한부모 또는 재혼 가정 자녀로 조사됐다.

현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중 1시간 반짜리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재판상 이혼에도 적극 권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이혼 절차에 필수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이혼한 부모를 잠재적 학대 행위 위험자로 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부모의 이혼 전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정서적 학대 유형과 아동학대를 막는 양육법 등을 자료로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 신고할 때부터 자녀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차선책으로 이혼 안내교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밖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감지될 경우 자녀학대 여부도 조사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부모교육연구회는 협의이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이 연극은 5~7월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홀에서 상연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3.4 X 14.7 cm

東亞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2면 사회

"아동학대 사회적 비용 年 76조… GDP의 5%"

〈최대〉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분석

"관련예산 올 372억뿐… 확대 시급"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7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범죄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자 수와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가 공동 시행한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른 학대 의심 아동 수를 근거로 각각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산했다. 직접비용에는 2014년 실제로 들어간 아동보호서비스 비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한 병원비 등을 포함했고, 피해아동의 특수교육비와 기초생활보장비용, 생산성 저하나 실업·미취업으로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직접비용만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8조 원에 달했고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3~8배 수준인 3014억~68조 원으로 추산됐다.

최소와 최대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해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학대 의심 아동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학대받는 아동에 비해 외부로 알려진 아동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아동학대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해 488억 원에서 올해에는 372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면서 "추산된 사회적 비용 최소치의 9.5%에 불과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13.4 X 13.2 cm

東亞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수도권

"경기도 24개 공공기관, 12개로 통폐합해야"

여야연정 경영합리화 용역결과 5월 도의회 제출… 9월께 확정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경영합리화를 위해 12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엘리오앤컴퍼니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구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 위탁이 가능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된 것으로 판단됐다. 수원시와 지분을 공유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은 통합 대상이 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은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한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신설 경기공사로 통합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된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가 최종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5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 도 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거쳐 9월경 실질적인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21.8 X 8.8 cm

東亞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수도권

경기도 누리과정 준예산 바닥 9개시군 어린이집 운영비 못줘

이달 처우개선비도 지급 못해

경기도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 시흥 성남 안산 광명 김포 양주 동두천 연천 등 9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일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 시한인 25일까지 주지 못했다. 이는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 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원아 1명당 7만 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용인 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 치 누리과정 지원비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회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사용했다. 평택 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지급했고 수원시는 경기도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 여주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보육료 22만 원과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용카드사에서 대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14.4 X 12.2 cm

국민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2면 사회



평화 염원 DMZ 자전거 투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27일 열린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고 있다. 이날 참가자 200여명은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렸다. 파주=김지훈 기자

18.6 X 8.5 cm

국민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3A면 사회

"훈육 아닌 범죄"

지자체 '아동학대 전염병' 퇴치전

패륜사건 확산에 차단 나서
쉼터·보호기관 마련 등 분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천 11살 소녀 탈출 사건과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충북 청주 의붓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8일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를 시청사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경찰청·교육청 관계자 등 각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가정 내 훈육'으로 여겨지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구시는 또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4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625억원을 투입해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권리 증진,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 서구는 '아동학대 예방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수사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14개 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서구는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시스템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광주 등도 일찌감치 수사기관, 지역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병원 등과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운영 중이다.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인천 11살 소녀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광주 큰딸 암매장 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방치 사망 사건, 평택 실종아동 사망 사건, 청주 의붓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가장 가까이서 아동학대를 예방, 발견,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83%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회성·전시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편집

mc102@kmib.co.kr
20.8 X 11.2 cm

한겨레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세월호 2차 청문회 오늘부터

탈출 막은 선내방송 누가? 왜? 규명 촉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참사 원인과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침몰 직전까지 집요하게 이어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방송의 이유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청문회 첫날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고 더이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선내 대기 방송을 최소 10여차례에 걸쳐 직접 했던 세월호 여객부 선원 강혜성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그동안 강씨는 참사에서 숨진 사무장 양대홍씨의 지시에 따라 안내방송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최근 특조위에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방송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누가, 어떤 내용의 방송을, 왜 지시했는지가 청문회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조위는 또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은 1차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도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6.6 X 18.2 cm

한겨레

2016년 03월 28일 (월)
09면 사회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416 대학생 새로 배움터'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교실을 둘러본 뒤 운동장에서 추모의 의미로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안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었던 단원고 희생자들의 형제자매 10여명이 기획한 '416 대학생 새로 배움터'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쓰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안산/신소영 기자

살아가는 매순간 네가 그립다고…유족과 친구들 함께 울다

단원고 희생자 형제자매들
26개 대학생 100여명
안산서 만나 '세월호 추모'

친구들 "너에겐 간절했을 삶
헛되이 살지 않을게"
유족들 "참사 잊지 말고
부모님께 사랑표현 많이 해줘"

지난 26일, 한동안 인적이 뜸했던 경기 안산시 초지동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가 오랜만에 붐볐다. 부산·목포·춘천 등 전국 26개 대학의 16학번 새내기를 비롯한 대학생 106명을,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었던 단원고 희생자들의 형제자매 10여명이 맞았다. 희생자 형제자매들은 한달 전부터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준비위원회와 함께 1박2일 동안의 '4·16 대학생 새로 배움터'를 직접 기획했다.

참사에서 동생 박성빈양을 잃은 박가을(24)씨는 동생의 영정 앞에서 동생 또래인 대학생들에게 동생을 소개했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던 박씨는 "수학여행 전에 영상통화로 옷도 골라줬는데, 내 신발을 신고 가서 한 짝은 신지 않은 채 돌아왔다"고 말했다. 학교에 붙어 있던 행사 포스터를 보고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양대 16학번 김아무개(21)씨는 분향소 밖을 나온 뒤에도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김씨는 "분향소에 처음 왔는데 영정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났다"며 "뉴스를 보면서 슬퍼하는 게 전부였는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새내기만 온 것은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등병이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죄스러워서 왔다"는 잔역한 지 두달 된 성지훈(23)씨를 비롯한 '현내기'들도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서 희생자들의 초·중학생 동생들과 멘토링 활동을 해왔다는 오소영(22)씨는 "아이들이 밝고 명랑해서 이겨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겨울 초등학생이던 아이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오빠 유골함'이라고 대답했다"며 "아이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다과회에서 대학생들은 형제자매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싸워왔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다.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휴학한 뒤 부모님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가을씨는 "어른들이 만날 때마다 동생이 없으니 나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생을 잃고 알게 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실에 대해 회피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온다는 말에 병원을 급히 퇴원하고 찾은 희생자 어머니도 있었다.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부인사 하듯이 (희생자) 엄마·아빠들과 아이들을 많이 찾아주면 좋겠다"며 "집에 돌아가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고, 부모님께 사랑 표현 많이 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대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외침으로 화답했다.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이 덮었던 이불을 덮고 짧은 밤을 보낸 대학생들은 이튿날 아침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고리를 함께 만들고 단원고 교실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한신대학교 16학번 김윤정(20)씨는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삶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삶이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헛되이 삶을 살지 않겠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동생들을 잃고 맞은 두번째 봄,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날 만남은 뜻깊었다. 희생자인 권오천군의 형 권오현(30)씨는 "동생 생각이 나서 동생 또래 아이들을 보는 것이 그동안 힘들었는데, 마음을 열고 대화할 기회가 생겨 좋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안산/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34.4 X 26.7 cm

한겨레
2016년 03월 28일 (월)
10면 사회



비무장지대 달려보실래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에 참가한 200여명이 임진강변을 따라 민간인통제구역 안쪽에 위치한 초평도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다음 '비무장지대 자전거 투어'는 4월24일, 5월22일, 8월25일, 10월23일 열리며, 경기관광 누리집(www.ggtou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2 X 14.0 cm

한겨레
2016년 03월 28일 (월)
10면 사회

올해 첫 AI 발생…경기도 내 오리 반출 금지

이천서…도내 오리 축산농장 출입못해

경기 이천에서 올해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류의 이동 중지와 반출 금지, 일제 검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경기 이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강력한 초동 방역 조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날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 안의 오리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 오리류 도축장·사료공장 등의 종사자·차량·물품도 이동이 금지된다.

경기도에 있는 오리와 오리알에 대해 이날부터 2일까지 다른 광역시·도로의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른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 기간에 경기도의 식용 오리는 경기도 안의 도축장에서만 잡을 수 있다. 발생 농가와 관련된 사료와 새끼 오리 공급자 소유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모든 오리 주검에 대해서도 28일부터 4월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이밖에 전국의 가금 판매소와 계류장 등을 28일부터 2일까지 일제 소독하고, 전국의 오리 농가에서 '일제 입식·출하'를 시행한다. 일제 입식·출하를 하면 한꺼번에 새끼 오리를 들였다가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사육 시설을 깨끗이 청소·소독할 수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13.4 X 10.0 cm

한겨레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경제

청년수당에 힘실어 주는 '금수저론'

청년수당은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또는 도입 검토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기에 부정적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거나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수당의 총대를 맨 곳은 성남시다. 성남시는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씩의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자기 계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한다. 서울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에 제한을 뒀다. 정기 소득이 없어야 하며, 전셋집 등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중위 소득 60%가 되지 않은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애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각 지자체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수당이 자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또 성남시의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도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을 청년에게 직접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청년수당 도입 논란의 직접적 배경은 '청년 취업난'이지만 좀더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 연구를 보면, 2013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자산 66%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 집중도'를 토대로 나온 사회적 표현이 '금수저론'이며, 정치적 버전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청년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탄탄한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김경락 기자

33.7 X 5.3 cm

경향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1면 사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서울가정법원 5월 '의무화'

서울가정법원이 오는5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군(사망당시 7세)처럼 이혼·재혼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1일부터 가사재판 및 협의이혼 시 진행되는 '자녀양육 안내' 절차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 절차는 법규의 일종인 대법원 예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부모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이혼 부모들에게 가르칠 계획이다. 신원영군 사건을참작해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면접교섭 시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난과 양육부담 탓에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재혼가정보다 더 많은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 성과가 좋으면 이 제도를 모든 법원에서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9.9 X 11.4 cm

경향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2면 사회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

오늘 '세월호 2차 청문회'… 특조위 사전조사에서 밝혀

"본인 판단·상관 지시" 검찰 조사·재판 때 진술과 달라

선사, 사고 듣고도 '대기하라' 했다면 특검 수사 불가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명의 발을 묶어 피해를 키운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해진해운 경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8일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세월호 여객부 직원 강혜성씨는 "사고 당시 선내 방송을 한 것은 인천 청해진해운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세월호특조위 사전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강씨는 사고 당일 배가 기울기 시작한 8시49분 직후부터 9시45분까지 한 시간여 동안 확인된 것만 12번에 걸쳐 '선내 대기' 안내방송을 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판단과 사무장 양대홍씨(사망) 등의 지시로 대기 방송을 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청해진해운 측이 당일 오전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강씨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검사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내 상황을 파악해 탈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선사가 정반대로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지막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온 9시45분 시점에 승객들이 대피를 시작했다면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6분17초가 걸린다는 가천대 박형주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검찰에도 제출됐다. 세월호는 10시30분에 완전히 침몰했다.

28~29일로 예정된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의 신빙성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선박의 위치·속력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AIS 항적도는 당초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지만 그동안 데이터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예정인 세월호 인양과 이후 선체 관리에 대해서도 특조위는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세월호 수색 중단과 인양을 합의하면서 내건 가장 큰 전제조건은 '온전한 선체 인양'이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위해 이준석 선장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4명을 불렀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35.2 X 8.3 cm

경향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전국

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 명령

이천 종오리 농장 AI 확진
병아리 1만1604마리 매몰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27일부터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 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0시부터 28일까지 낮 12시까지이며, 6427곳(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298)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4월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반출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특별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 전국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 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앞서 이천시는 26일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조사에 나서 AI 바이러스를 검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천과 인접한 충북도도 이천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 앙성과 음성 감곡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은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4.4 X 30.9 cm

한국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2면 사회

AI 청정국 회복 26일 만에 이천서 재발… 가금류 수출길 또 막힐 듯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으로 확진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면서, 어렵게 열리기 시작했던 가금류 수출길은 또 막히게 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 이천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즉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종오리 1만 900여마리를 살처분했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와 거점소독을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경기 도내 오리류(청둥오리 포함)의 관련 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28일 낮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의 반출을 다음달 2일까지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발생상황에 따라 반출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천시 AI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언한 지 불과 26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마지막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추가 발생이 없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청정국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조건에 따르면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고 ▲3개월간 바이러스가 순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위의 두 요건을 입증할 예찰 자료가 있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에는 홍콩과 협의해 2014년 5월부터 중단된 닭고기 수출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막혔던 가금류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 힘써 왔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26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한 오리 농장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천=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AI 재발로 수출 재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확진되면 청정국 지위를 바로 잃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발생 24시간 안에 OIE 등 국제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AI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살처분 보상금 1,392억원 등 최소 2,386억원에 달한다. 2003~2004년 발생 때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출됐다.

28.3 X 17.9 cm

한국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수도권

"고구마에 항산화 작용"… 의약품 혼동 우려 없다면 과장 광고 아니다

경기도행심위, 영업정지명령 취소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품 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A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의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했다가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여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행심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제품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여주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해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21.2 X 6.3 cm

세계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9면 사회

아동학대가 주는 손실… 사회적 비용 연간 최대 76조

이화여대 연구팀 논문서 직·간접 부담 첫 추산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한국 사회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할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경제적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연구팀은 27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논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부담한 연간 비용은 최소 3899억원(2014년 기준)에서 최대 76조2909억원(2011년 ~)이라고 밝혔다.

비용의 최소치와 최대치 격차가 큰 이유는 실제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아동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전체 아동의 0.11%인데,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의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비율이 전체 아동의 25%에 달했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관련 담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직접비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아동보호서비스와 기타 기관의 아동보호 비용, 각종 병원비 등이 포함됐다. 간접비용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른 진료비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부모의 불화 등에 따른 각종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가 담겼다.

항목별로는 향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겪을 생산성 저하와 미취업·실직 등 고용과 관련한 비용 손실이 45조58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살 및 정신질환 등 건강 관련 비용(8조7010억원)과 의료비(8조262억원)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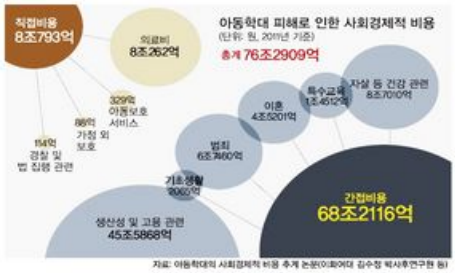
아동보호 서비스·병원비 포함
부모 불화로 생산성 가치 하락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작 56곳
상담원 1명당 1만8000명 담당

정부 예산은 올해 372억 불과
"예방·치료 지원 대폭 늘려야"

이렇듯,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372억원에 불과하다. 연구팀이 내놓은 최소치의 9.5%, 최대치의 0.0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곳에 불과하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밖에 안 돼 상담원 1명당 아동 1만8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정 박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아동학대가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논문(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 등)

34.6 X 11.9 cm

세계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0면 사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앞두고 '기억교실' 찾은 대학 신입생

유족 "우리 애도 대학생 됐을텐데" 눈물

안산=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7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전국 26개 대학에서 온 신입생 100여명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억교실'에 들어서면서였다. 대학생들은 노란 포스트잇과 사진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상 사이로 말없이 거닐었다. 눈가가 촉촉해진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유족들이 교실 앞으로 나와 학생들에게 말을 건네며 침묵이 끊겼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잊기 마련이죠. 이 기억교실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잊지 말자'는 메시지만큼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내기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유족들의 심경은 복잡해 보였다. '오천이형' 권오현(29)씨는 "동생이 살아 있었다면 딱 이들과 같은 나이였을 것"이라며 "이 학생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친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빈이 엄마' 전인숙(44)씨는 "이렇게 찾아와 준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면서도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 신경질이 난다. 먼저 간 아이 생각이 나 답답하고 착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단원고를 찾은 대학생들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유족과 함께 한 '416 대학생 새로배움터'에 참여 중이었다. 참사가 아니었다면 어디에선가 희생자들과 함께 풋풋한 신입생으로 마주했을 이들. 대학생 김영학(19)씨는 "유족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 졸업식 시간. "저기에 우리 딸도 있었으면…" '시연 엄마' 윤경희(39)씨는 멀찍이서 희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노란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는 대학생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11.4 X 13.4 cm

세계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2B면 전국

통일 염원 안고… '두 바퀴'로 달린 DMZ

임진각서 올해 첫 자전거 투어
200여명 14~17.2㎞ 코스 질주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자전거를 타고 DMZ(비무장지대)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DMZ 자전거 투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2016년도 제1회 DMZ자전거 투어'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이벤트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0년부터 실시해 왔다.

이날 행사는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총 1만5000명의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파주 임진각에는 가족과 친구 등과 함께 민통선의 봄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명의 라이더들로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일대 코스를 달렸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능력에 맞춰 달릴 수있도록 17.2km 중급코스와 14km의 초급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엽서 보내기와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도 제공됐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오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에 진행된다.

17.1 X 7.8 cm

서울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9면 사회

AI 청정국 회복 한 달도 안 돼… 이천 오리농장 확진

수출 악영향 우려 긴급 방역 조치
오리 등 1만 6000마리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우리나라가 2년여 만에 되찾은 AI 청정국 지위를 한 달도 안 돼 다시 잃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이천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8월 청정국이 됐던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병해 지위를 상실했다가 지난달 28일 되찾았다. 청정국 지위는 AI 발생에 따른 최종 살처분 뒤 3개월 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조사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내면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과 함께 2년 만에 재개된 닭과 오리의 홍콩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홍콩과의 계약은 국내 40개 수출 작업장 가운데 AI가 발생한 광역시·도 단위로 수출을 금지하게 돼 있다. 경기 지역에는 4곳의 수출 작업장이 있다.

이천시와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이천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 6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내렸다.

대상은 6427곳(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298)이다. AI 특별대책 기간인 오는 5월까지 전국 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11.1 X 11.1 cm

매일경제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경제

당정, 누리과정 특별법 추진
정부-지차체 갈등 해소 전망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해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 의도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해마다 빚은 마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5.0 X 14.2 cm

서울경제
2016년 03월 28일 (월)
31면 전국

경기농기원,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 설명회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9일 일선 시군기술센터 등에서 개발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우수 농업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농기원이 개발한 ▲허브쿠키·파이 제조기술 ▲쌀 발효액 이용 쌀빵 제조기술 ▲버섯가공품 제조 기술 등을 소개한다. 또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연성분 함유 기능성 소금 제조기술 ▲연성분 함유 팥앙금 제조기술 등을 소개한다. 개발 제품 전시·시음 및 시식 행사도 병행한다. 이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계약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윤종열기자

9.4 X 5.3 cm

서울경제
2016년 03월 28일 (월)
31면 전국

경기중기센터 'ICT 융합 분야' 세미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양주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융합 분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이수화 서정대학교 교수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생,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 산업 및 직업의 변화 등을 소개한다. 세미나 참가는 선착순 100명이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9.4 X 5.4 cm

서울경제
2016년 03월 28일 (월)
31면 전국

경기도 "고구마에 항산화 성분…허위 광고 아냐"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 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위법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주시 A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여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광고를 했다. 이에 여주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A법인의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판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윤종열기자

9.4 X 6.9 cm

파이낸셜 뉴스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개성공단 유동자산 피해 정부가 직접 보전

원부자재·완제품 등 대출 대신 예산투입 검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피해 보전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지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발생한 기업들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외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철수 조치로 공단에 남겨두고 온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15.3 X 8.5 cm

파이낸셜뉴스
2016년 03월 28일 (월)
26면 전국

"도청 행사 불참한 공공기관장 사유서 써라"

산하기관장에 甲질하는 경기도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도청 주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언론보도 관리를 위해 '보도지침'까지 마련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하기관을 하청업체처럼 취급한다는 이른바 '갑질' 주장과 함께 도 협력기관인 공공기관이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 소통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장에 공문을 통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문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니 불참 이유도 서류를 통해 받는 것"이라며 "단순히 불참 이유를 듣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 진행 등을 위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유서 제출은 '경위서'나 '시말서' 등의 징계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참석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도청에서 하라는대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사유서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의 가이드라인까지 추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도와 협력하는 사업의 보도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 불필요한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도가 공공기관 작성 보도자료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같은 행태는 이미 실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부 실국의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이미 작성된 보도자료에 '경기도(남경필)'만 끼워 넣는 형태로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당연히 도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집행부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소통과 협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언론 가이드라인은 통제나 간섭이 아닌 일정 조율 등을 위한 것"이라며 "도와 공공기관은 협력 관계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10.2 X 17.1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경기과기원 포함 6곳 폐지 '칼바람'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

경영합리화 용역 결과… 테크노파크 등 3곳 기능 유사

통폐합 대상 반발·도의회 상임위 이해관계 엇갈려 난항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6개는 폐지하고 10개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반발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엘리오앤캠퍼니가 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과기원은 산학연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은 통폐합대상이 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창업·판촉·통상지원 등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물류부지조성·임대 기능이 중복돼 기능을 합쳐 경기공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 표 참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됐고, 중복기능이 없지만 향후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4개 기관으로 킨텍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체육회 등이 분류됐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여야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최종 통폐합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 등으로 통폐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4년 도의회의 반대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의 기초를 담은 초안으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통·폐합 대상 기관 및 경영합리화 방안

폐지 (6개 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통폐합 (10개 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경제산업진흥원(신설)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공사(신설)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조정 (4개 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양주섬유센터 흡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중기센터 소상공인 지원기능 흡수)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 확장 이전)	
	경기관광공사 (재단으로 변경)	
자체 경영개선 (4개 기관)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이천시 마장면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경기도내 오리류 및 관련 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7일 오전 관계자들이 발생 농장 입구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이천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차단 비상'

병아리등 1만여마리 살처분… 용인·광주등 방역 온힘

이천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사육 농가도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 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은 6천427곳(농장 115·도축장 2·사료공장 12·차량 등 6천298)이다.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천시는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도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중이며 농가를 직접 둘러보며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오리사육 농가에서도 자체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AI 발생으로 오리농장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천시 관내에는 현재 가금류 농가 85곳에서 526만 7천여 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마장면 AI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에도 115만여 수가 사육되고 있다.

또 2년여 만에 재개된 경기도 계란 수출도 잠정 중단됐다. 지난달 28일자로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도내 한 계란생산업체가 홍콩에 계란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AI 발생으로 가금류 전체 수출이 전면 보류된 것이다.

이천 /박승용·서인범·전사인기자
sib@kyeongin.com

15.1 X 19.5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경기도지사·인천시장·교육감 재산 증가

도내 시장·군수 31명중 19명⬆… 인천 평균 29억9569만원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재산이 증가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남 지사는 올해 34억5738만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8천65만원이 늘어났고, 이재정 도교육감은 5억3천769만원을 신고했다. 도내 시장·군수 31명 가운데 19명은 재산이 늘고 10명은 줄었다. 재선거를 치르는 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교범 하남시장으로 80억3천134만원을 신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인천 주요 기관장은 다른 지역 기관장보다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보다 5천794만원이 늘어난 8억6천988만원을 신고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지난해보다 재산이 6천957만원 늘어난 8천737만원을 신고했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9억9천5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강기정·박경호기자

kanggj@kyeongin.com

15.1 X 8.0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6면 경제

인쇄中企 "광역지자체 자체 발간실 폐지해야"

업계 "경기도 '전국 최대규모' 지역 종사자 고사·생존위협"
인천시 간접인쇄비 3배 많아
道측 "보안서류 불가피" 난색

경기·인천지역 인쇄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광역지자체들의 자체 인쇄소 운영으로 인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자체 발간실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11곳이 '자체발간실'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도의 최근 3년간 자체발간금액은 연평균 12억3천여만원에 달한 반면 외부 발간금액은 3억5천여만원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인쇄물이 발간실을 통해 자체 조달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쇄물 발간금액 대비 78.5%로 최근 3년간 75.4%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경영위기를 맞은 도내 인쇄 업계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졌다.

도는 특히 지난 2008년 18억원을 들여 POD(디지털인쇄시스템)을 도입하고, 10여명의 전담직원까지 둬 지역 인쇄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표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의 자체발간실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과 인력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최대 11배 많은 인쇄물량을 자체 발간하는 '무허가 대형인쇄제조장'이나 다름없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도내 260여곳, 4천500여명의 인쇄업 종사자들에게 인쇄 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자체발간실을 운영중이지만, 종이·카트리지·인쇄장비 구입비 등 직접 인쇄비용보다 발간실 부서 운영비, 인건비, 수리비 등 간접인쇄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도는 최근 3년간 직접인쇄비로 17억7천여만원을, 간접인쇄비로 이보다 많은 19억1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인천시의 경우 직접인쇄비(2억4천483만원)보다 간접인쇄비(7억1천262만원)가 무려 3배 가량 많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서류 등은 자체적으로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발간실 직원 수와 발간량을 줄이고 있고, 각 실·과에 외부발간을 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중소 인쇄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재·신선미·전시인기자 ssunmi@kyeongin.com

25.3 X 17.8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5면 스포츠

도장애인체육회 역량강화 교육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26일 양평군 일원에서 2016년 제1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 및 김기홍 이사 등 25명의 임직원이 참석, 청렴 선포식 및 서약식 등 청렴 교육과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도 했다.

5.8 X 5.2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5면 스포츠

경기체고 도학생체전 잇단 금펀치

경기체고가 제41회 경기도학생체전 및 제97회 전국체전 복싱 1차 선발전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경기체고는 지난 23~26일까지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64kg급에서 하성규와 김원효가 각각 금·은메달을 따냈고, 69kg급에선 박재만이 우승했다. 또 경기체고 황산익과 장현동, 한진우도 각각 75·81·91kg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소년체전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 경기에선 아진(의정부서중·38kg급), 김민서(용인 포곡중·42kg급), 강은찬(성남 금광중·46kg급) 등이 각 체급에서 1위에 올랐다.

5.8 X 7.3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7면 사설/칼럼

이천서 오리 AI(고병원성)확진, 확산방지 비상

우려했던 고병원성 AI가 이천에서 확진, 발병했다. 경기도와 보건당국은 물론 가금류 사육농가도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이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인 AI바이러스가 정밀검사결과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발생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00여마리를 즉시 매몰처분했다. 농식품부와 경기도는 휴일인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전역에 가축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도내 전체 오리농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의 타 시도 반출도 일절 금지토록 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오리류 축산농장 115곳과 도축장 2곳, 사료공장 12곳, 관련차량과 작업장 6천여곳 그리고 임상수의사·수집상·중개상·사료운반기사 등 관련 종사자 들이다.

이번 이천시에서의 AI발생은 지난달 28일자로 AI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유려된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AI가 철새가 아닌 전남지역 농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전남지역 등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 방역체계를 갖추고 대비해 왔다. 그러나 이천에서 AI가 발생해 방역활동이 무위로 돌아갔다. 방역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천시는 AI가 발생한 마장면 오리농장에 현장통제소를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소독 및 예찰활동에 나섰다. 이번 오리농장의 AI발생으로 2년여만에 재개된 경기도의 계란 수출도 중단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오리로 제한됐지만 AI청정국 지위를 상실해 모든 가금류의 수출이 막힌 것이다.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홍콩 등에 수출하려던 계란의 수출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수출 길이 다시 열리려면 AI발생으로 최종 살처분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하고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도 없어야 한다. 가금류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축산농가에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물샐틈 없는 방역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12.6 X 13.5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문화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 5월 '시민공간' 재탄생

10여 년째 폐허로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돼 오는 5월 시민에 공개된다. 27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도와 재단은 지난 2003년 캠퍼스 이전 이후 수원 서둔동 일대에 방치된 15만2천70㎡의 서울대 농생대 부지 일부를 활용해 도민과 청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공간을 조성 중이다. 농업체험캠프, 카페, 쉼터, 따복 기숙사 등 시민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은 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문닫힌 캠퍼스에 문화의 문 열리다



복합예술공간이 들어설 부지 /경기문화재단

상상공학관·생활문화센터등 조성
'책 가득' 인생도서관·청년 지원도

9층
가장 먼
저 선보일
문화·예술센터
는 총 4곳의 공간을
기점으로 순차 개방될 예
정이다. 옛 서울대 농공학관(지
상 3층 2천977㎡)을 활용, 주민들의
공방과 휴식처 역할을 할 '상상공학관'이
오는 5월 중순께 처음 선보인다.
'상상공학관'은 주민들이 섬유·유리·도자 작업을
입주작가들로부터 배우고, 직접 만든 제품을 함께 있는
전시 공간에 곧바로 내걸어 판매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구
조로 만들어진다. 건축의 테마는 '주민'과 '재생'이다. 건물은 별
도의 설계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필요한
위치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 건축폐기물이 될 폐유리를 압축
해 블록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칠판과 옛 서울대생들의 낙서가 담긴 벽면
도 그대로 활용해 기존 공간의 정취도 함께 담아간다는 방침이다. 상상공학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옛 농원예학관(지상 3층 3천467㎡)은 '생활문화센터(가칭)'로 탈바꿈
돼 5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상식을 주입하는 기존의 문화센터 방식이 아
닌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자치운영방안을 지원해 그들만의 문화공유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에 걸맞게 생활문화센터 2층에 들어설 카페테리아와 휴식공간은 주민들이 목공소에서
직접 만든 가구들로 채워지고, 판매하는 먹거리 역시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든 음료와 음식
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물 전체의 테마가 '인생 도서관'인 만큼 매 층 곳곳에 해당 공방과 관련된 서적을 채움
예정이다.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옛 농화학관(지상2층 2천
977㎡)에 들어설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칭)'는 생활문화센터 일부 공간과 함께 스타트업 10개 팀과 사회적 기업 4~5개
팀이 사용할 사무공간과 세미나실, 회의실이 생길 예정이다. 또 농업공작실(지상 1층 932㎡)을 활용할 '청년공작소(가칭)'에
는 3D프린터와 목공 공간을 지원, 청년 기업들이 구상한 제품을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공간
인 만큼 생산품종에 따라 제작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문화공간은 시작부
터 운영까지 모두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문화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관은 이 문화공간에서 단생한 청년문화 기획자와 생활예술 장
인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36.0 X 19.1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9면 문화

'1기 경기 영아티스트' 박진형군

중앙음악콩쿠르 우승 '지원 성과'

피아노부문 본선 1위 입상 '쾌거'

김준호군은 '야마하 장학생' 선발

도문화의전당 2기 참여자 모집중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배출한 제1기 영아티스트 박진형(20·사진)군이 지난 24일 치러진 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본선에서 1위에 입상했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전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음악가 양성사업으로, 유망한 신예들을 뽑아 독주회·오케스트라 협연·찾아가는 공연·마스터클래스 등 다수의 무대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티스트 홍보, 멘토링 등 본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주들에 대한 홍보도 담당한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1기 영아티스트들은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상에 이름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우승한 박군은 제17회 바르샤바 국제 쇼팽 피아노콩쿠르 본선과 제18회 산탄테르 국제 콩쿠르 피아노부문 결선에 진출한 바 있으며, 김준호군은 제55회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입상에 이어 제4회 야마하 음악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박군은 "국제무대에서 연주기회가 많은 외국학생들에 비해 무대경험이 부족해 연주무대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경기 영아티스트'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긴장감을 줄여줘 편안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당은 이달 말까지 제2기 영아티스트를 모집 중이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데뷔무대 뿐 아니라 연 2회 이상의 리사이틀, 협연 등 다수의 무대경험을 제공한다. 또 국내·외 저명 아티스트와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를 역임한 김남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이 예술감독을 담당한다.

모집대상은 만 14~25세의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연주자이며, 1차 동영상심사와 2차 무대오디션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응시방법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31)230-3273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사진/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11.7 X 19.3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9면 문화

경기도박물관, 토요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초등 4~6학년 대상 25명씩 3회 진행

경기도박물관은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될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옛 문화 속 아름다움'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사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동일 프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11월 26일까지 진행한다. 기수당 정원은 25명이다.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박물관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을 즐기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레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식·주 문화가 담긴 유물을 관찰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기는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상시 신청 가능하다. 2기(6월18일~8월20일)는 6월 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net.ggcf.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031)288-5836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11.7 X 9.3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1면 지역

경기콘진원 '게임커넥션 아메리카'서 1042만불 계약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박헌용)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인 '게임커넥션 아메리카 2016(Game Connection America 2016, 게임 커넥션)'에 참가(**경인일보 3월 14일자 20면보도**)한 도내 10개 게임기업이 약 1천42만 달러(약 120억 원)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사에서 올린 763만 달러 대비 37% 성장한 성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게임커넥션에 참가한 진흥원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임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김재홍)와 함께 역대 최고 규모의 한국 공동관을 구성해 경기도 게임기업의 비즈니스 상담 161건을 지원했다.

특히 지원기업 중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VR(가상현실)을 앞세운 'DEC 코리아'의 '프로젝트 M', '플랜츠 워 VR' ▲화려한 그래픽으로 최신 모바일게임 트렌드를 반영한 '웹젠'의 '뮤 오리진'이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창조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SF MMORPG(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코즈믹 온라인'(집연구소, 대표·권오현) ▲북미 시장을 겨냥한 캐릭터 디자인이 돋보이는 '해피앤스마일(Happy&Smile)'(해피래빗쇼, 대표·박병선)은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10.0 X 10.8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1면 지역



성남소방서 '종합평가 으뜸' 성남소방서(서장·임국빈)는 지난 26일 2015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난해 소방서에서 추진한 각종 소방안전정책을 6개 분야 28개 시책 88개 지표를 기준으로 3차례 평가했다. 성남소방서는 전 분야에서 최상위 평가를 기록했으며 1천점 만점에 976.95점을 받아 경기도내 34개 소방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수원소방서가, 3위는 파주소방서가 각각 수상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15.7 X 12.4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2면 사회

사상 첫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누리과정 해결부터" 연기요구

경기교육청 "부정수급 조사"
지원비 소진 유치원 '이중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비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는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립유치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구리, 남양주, 안산, 의정부 등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비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비(1인당 29만원) 중 맞벌이 가정의 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육 과정비(1인당 7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의 출결 관리에 따른 정산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복 수혜자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 12개 항목을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다 감사를 할 경우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1천646억 원)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4개월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되는 오는 5월부터 인건비, 운영비 지급 등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4개월 치 지급으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2차 보육 대란 위기와 특정 감사 실시로 사립유치원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표본 조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방과 후 교육 과정비를 부정 수급해 왔던 점이 공통으로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원아 출결 관리 등에 대해 지침을 만들고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15.1 X 15.3 cm

경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A면 사회

'화약고' 방치… 11년 지나도 깨지지않는 '유리방'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

>|< '성매매특별법' 머쓱하게 한 지자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유리방'(집창촌)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 홍등이 켜진 유리방 안에는 풍만한 가슴골을 훤히 내보인 종사 여성들이 의자에 앉은 채 자신의 성(性)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유리방은 성매매 집결지의 대표 유형으로 오피스텔·모텔 등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와 달리 전업형이다. 성을 팔고 사는 것 모두 불법인 현실에서 외부에 드러내놓고 영업 중인 유리방은 '치외법권'이 된 지 오래다. 이 사이 유리방은 도심 속 섬이 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성매매 집결지를 없앨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섬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의미다. | 편집자 주



개발 사각지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기도내 대표 성매매 집결지가 지자체 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했다 표류하는 등 도심 속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수원역 앞 집창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청량리 588, 마아리 텍사스로 대변되는 유리방이지만 분포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다. 수원역 앞과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성남 중동 등 6곳이 영업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전국 21곳의 28.6%에 해당한다. 올해 9월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12주년을 맞지만 도내 유리방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도내 평택 삼리등 6곳 영업중

수원시만 늦게나마 정비나서

업주등 얽혀 '불법영업' 불구

생존권·보상요구 거칠게 맞서

■**지자체 뭐했나?**=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는 유리방이 50여년 전부터 성업 중이다. 시의 관문이자 얼굴 격인 지하철 1호선·경부선 수원역사 맞은 편 2만2천여㎡ 부지에 99개 업소, 2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된다. 노른자 위 땅 위에 들어선 역세권 유리방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5월에서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계획 세우기에 나섰다. '성매매=불법'이라는 등식이 확고해진 지 11년이 지난 후다. 개발계획도 토지(건물)주가 참여하는 일종의 도시환경정비사업(수원역과 같은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 알려졌는데 토지주와 업주(포주), 종사여성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자칫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평택시는 기본계획을 그릴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았다. 평택 삼리(52개 업소·145명 종사)는 지하철1호선 평택역사 바로 옆이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 평택~서울 수서간 KTX개통(오는 8월) 등 각종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 삼리 지역에 5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단지 건립사업이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조용하다. 평택시는 삼리의 지가(3.3㎡당 최대 2천500만원)가 워낙 높아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파주 용주골(80여개 업체·180여명 종사)은 지난해 8월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답보상태고, 성남 중동(20여개 업체·80여명 종사)은 지난 2011년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가까지 났지만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왜 방치하나**=성매매 집결지는 화약고로 불린다. 조금만 손대려 해도 토지(건물)주와 업주, 종사여성 등이 각각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칠게 맞서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업주에게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불법 영업이다 보니 보상여부는 물론 기준마저 애매하다. 더욱이 성매매 특별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최종 판단예정)에서 행정기관은 강제철거라는 강경책을 빼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민욱·민웅기·신지영기자
kmw@kyeongin.com

30.3 X 19.4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또 AI에 뚫린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도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오후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된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종오리 1만2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오승현기자

20.5 X 13.0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道 24개 산하기관 13개로 통폐합해야"

경기도 용역보고서
기능 중복 과기원 등 6곳 폐지
5월 도의회 임시회 제출 예정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엘리오앤컴퍼니가 낸 용역보고서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고 수원시와 지분을 공유하고 수원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은 통합대상이 됐다.

경기도 산하기관 24개 통폐합 방안

통폐합 방안	산하기관
폐지(6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통합·흡수(10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경기경제산업진흥원 (신설통합) 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 (흡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 (흡수) 경기도시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공사 (신설통합)
기능조정(4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자체경영개선(4개)	킨텍스, 경기도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창업·판촉·통상지원 등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합해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물류부지조성·임대가 경기도시공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기능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넘겨받도록 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재단으로 설립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복기능이 없지만 향후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4개 기관으로 킨텍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체육회 등이 분류됐다.

한편, 도는 용역보고서를 여야연정 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최종 통폐합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인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최원재기자

20.5 X 17.3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준예산 바닥난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현 우려

경기도내 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급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2개월분이 모두 바닥나면서 상당수 시·군이 이달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이 팽배, 녹록지가 않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광주·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10개 시·군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체 시한인 지난 25일 지급하지 못했다. 일부 시·군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넘기지 못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시·군은 매달 25일 어린이집으로 계좌이체 해야 하지만 앞서 도가 넘겨준 두 달치 준예산마저 바닥이 나면서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원 등 총 7억4천900만원을 어린이집으로 이체해 줘야 하지만 단 한 푼도 전달하지 못했고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 운영비 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재민·박준상 기자

13.5 X 9.0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道 '제안창조오디션' 확대

올해 3차례 실시

경기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안공모에도 오디션 형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3회에 걸쳐 제안창조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1회 경기도 제안 창조 오디션의 성과가 좋아 올해 개최 횟수를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첫 번째 오디션을 5월말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제를 제시하고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식으로 오디션 방식을 변경, 첫 번째 주제로 '경기도 북부 1박2일 관광 상품 개발' 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 등 2개를 선정했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오는 4월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개최되는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에 진출하게 된다. 오디션은 전문심사위원 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천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5.6 X 20.2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 박근혜 대통령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남경필 경기지사, 강신명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의정부시에서 열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식에서 영상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6.7 X 9.8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강좌' 참가하세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설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성장을 위한 '터 무늬학교'를 비롯해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모·떠·꿈 워크숍', 마을 만들기 기초교육인 '찾아가는 마을학교'와 '마을강사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이다.

먼저 '터 무늬 학교'는 다음달 20일부터 5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또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은 다음달 25일부터 5월16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 진행되며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자) 워크숍'은 다음달 21일~23일까지 2박3일 워크숍과 5월26일 후속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강사 양성교육'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재기자

11.4 X 8.1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남지사 34억5천여만원… 전년比 8천만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재산이 34억5천738만원으로 전년보다 8천65만원 증가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도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122억4천만원을 신고한 경기도의회 이현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재산은 34억5천738만원으로 작년보다 8천65만원이 늘었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재산은 마이너스 1천6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재산총액은 80억3천134만원으로 재산 공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경기도 시장·군수 29명 가운데 19명(65.5%)은 재산이 늘었고 10명(34.4%)은 줄었다. 도내 시·군은 총 31곳이지만 재선거를 치르는 양주시와 구리시는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 시장에 이어 황은성 안성시장이 33억9천296만원으로 전년 3등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체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으로 전년보다 4억7천만원이 늘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현호 도의원 122억원 '최고'
이기우 부지사 -1천618만원
시장·군수 29명중 19명 재산↑

경기도의원 123명 중에는 86명(69.9%)의 재산이 평균 1억원 증가했다. 이현호 의원이 122억4천749만원으로 전년에 이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재순 의원이 42억7천908만원으로 2위, 조재욱 의원이 40억1천26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도내 시·군 기초의원(429명)과 공직유관단체기관장(11명) 중에는 256명(58.1%)의 재산이 평균 1억3천만원 증가했다. 182명(41.3%)은 평균 2억7천만원이 감소했다.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은 91억5천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한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11명 중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4억7천196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천525만원 늘어난 5억3769만원을 신고했다.

최원재기자

16.7 X 11.6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내달부터 '담보대출' 시행

복지시설 종사자 '저금리' 혜택

납부한 원금 담보 '대출상품'
금리 연 4.3%… 최대 1% 할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가 다음 달부터 '담보대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제회에 따르면 기존 공제회에서 진행하던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를 기본으로 최저 3.81%에서 최고 10.9%의 금리로 진행됐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대출서비스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공제회에 납부한 원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으로 대출금리는 기본 4.3% 내외이다. 특히 다양한 우대혜택을 적용받으면 최대 1%까지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번 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회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다음 달부터 5년 만기상품(2.9% 고정금리)을 신설, 6개월간 한시적 판매를 진행한다. 이는 현재 3년 만기상품과 10년 이상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회에 5년 만기상품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3년 만기상품(4.0% 고정금리)은 다음 달부터 2.5% 고정금리로 금리를 인하한다.

조남범 공제회 대표는 "신규로 시행하는 담보대출서비스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적립형 공제급여 부금을 많이 불입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 경기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 5월에 설립됐다.

이호준기자

11.4 X 13.7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6면 사회

"또… 자식같은 가축 죽여야" 농민의 절규

'고병원성 AI' 이천 농장은

"설마했는데…" 도내 올해 첫 발생
종오리 1만2천마리 긴급 살처분
방역 확대·이동통제 등 초긴장

광주·용인으로 확산 차단 안간힘

"더 말해 뭐합니까. 제 자식을 묻는 심정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천시 마장면의 오리 농가 주인 C씨(70)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에서 오리를 키워온 C씨는 지난 23일부터 농장 내 오리들이 사료를 제대로 먹지 않고 일부는 갑자기 죽은 것을 의심해 방역당국에 신고한 뒤, 며칠 안돼 AI바이러스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번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천시 등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C씨 농가 내 종오리 1만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C씨는 농가 직원 10여명과 함께 방역 당국 직원의 지시 아래 차분하게 살처분 작업에 협조했지만, 일하는 내내 별다른 말 없이 한숨만 내쉬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C씨는 "10년 넘게 오리농장을 운영했지만 AI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무리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장면 일대는 방역 당국이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며 AI를 잡기 위한 작업 때문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삼엄했다. 인근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J씨(56)는 삼엄한 통제에 "이천은 닭이나 오리뿐 아니라 돼지도 많이 키우는 탓에 AI는 물론, 구제역 발생에 항상 주민들이 노심초사해 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AI 발생으로 인해 한동안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천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도 AI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운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선 C씨의 농장과 주변 지역에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C씨 농가와 반경 10㎞ 내 AI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는, 닭·오리·메추리를 키우는 24개 농장(114만7천957마리)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이중 3개 농장(6만200마리)은 방역 당국의 직접적인 보호조치에, 14개 농장(108만7천725마리)은 관심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도내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AI로서 마장면을 포함 인근 대월·백사·호법면 일대까지 통제에 들어갔다"며 "특히 AI가 발생한 마장면 뿐만 아니라 인근의 광주, 용인까지 AI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24.1 X 18.2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8면 경제

도청 자체발간실 때문에… 영세 인쇄업체 '관공서 일감' 씨말랐다

도내업계 "영역침범"… 축소·폐지 촉구
경기도, 전국 최대규모·인력 발간실 운영
관공서 수주 원천차단… 경영난 가중 토로
도청 발간실 직접인쇄비比 인건·수리비↑
예산절감 운영취지도 퇴색 '비효율성' 주장

경기지역 중소 인쇄업계가 경기도청 발간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발간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관공서 수주가 막힌 인쇄업계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발간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1개 지자체(65%)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도청 발간실이다. 경기도의 자체 발간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2억2천863만원으로, 지자체 총 자체 발간금액의 32.3%(연 38억원)을 차지했다.

발간실 직원 수 또한 평균 10.3명으로 2위인 전북(6.3명)보다 40%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78.5%를 자체 제작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애인·보훈단체에만 외주를 줘 지역 인쇄기업들은 사실상 경기도 관련 인쇄물의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인쇄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인쇄업계 경영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내 인쇄기업 76.7%는 매출 감소를 겪을 정도로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이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영세한 인쇄업체의 고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발간실 운영의 취지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자체발간 누계금액을 '직접 인쇄비'(종이·카트리지 구입비 등)와 '간접 인쇄비'(인건비·장비수리비 등)로 구분했을 때 간접 인쇄비의 비중(19억1천342만원)이 직접 인쇄비(17억7천247만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중소 인쇄 기업인들의 사기까지 꺾는 경기도청 발간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발간실 폐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장 발간실을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도내 영세 인쇄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권주기자

34.7 X 8.1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8면 경제



본보·킨텍스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사업설명회

6차산업 사업자 등 참석… 판로개척 박람회 성공개최 논의

킨텍스와 경기일보는 지난 25일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와 G마크 농가, 도내 농특산물 관련 기업 관계자, 31개 시·군 관련 공무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및 경기농림진흥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농특산물 판로개척 박람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 명품 특산물관'과 '6차산업 명품관', '시·군 명품 브랜드관', '부대 행사관' 등 박람회 부스에서 진행되는 세부 프로그램과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수출입 상담' 등 판로 개척을 돕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설명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시·군 관련 단체 및 기업의 많은 참여가 이뤄져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마케팅 판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은 우수한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한 각 지역의 대표 농축수산 특산물을 발굴하고 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대규모 행사로, 오는 6월16~19일 나흘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정자연기자

19.7 X 9.7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문화



옛 서울대 농생대, '생태·예술공간'으로 변신

15년가량 방치돼 있던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가 오는 5월 문화·예술공간으로 부활한다. 특히 '생태'와 '청년', '능동적 주민 공동체 발굴' 등을 키워드로 내세워 기존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들과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환골탈태' 앞둔 수원캠퍼스 가보니…

2003년 폐교후 방치… 리모델링 한창
상상공학관·생활문화센터 5월 문열어
주민 누구나 즐기는 '공동체 쉼터'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4일 오후 재개방을 앞둔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수원 서둔동)의 공사 현장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 캠퍼스에는 1950년대부터 2003년 서울대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폐쇄되기까지 세운 건축물 22개 동이 남아 있다.

이날 소개한 공간은 안전도 검사 결과 합격점을 받은 5개동 중 3곳이다.

이 중 옛 서울대 농공학관(지상 3층·2천977㎡)은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주)디자인하우스와 남이섬을 구축 남이나라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돼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상상공학관'이라 이름 붙이고,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공간 운영에 목적을 뒀다. 공사 과정이 독특한데, 건물 3층부터 시작한다. 외부 산책로에서 3층 옥상으로 다리를 놓아 자연스럽게 건물 전 층을 구석구석 볼 수 있도록 동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건물에서 나온 폐유리를 벽 마감재로 활용하고 각종 사진과 책으로 아카이브 전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생'을 시도한다.

1층에서는 섬유·유리·도자 작업 등을 지역 장인과 작가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에 앞서 진행한 지역 조사 결과, 인근에 과거 선경과 한일합섬 직원들이 많아 손기술이 좋은 주민이 남아 있는 지역성을 특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5월 '상상공학관'과 동시에 개소 예정인 옛 농원예학관(지상 3층·3천467㎡)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한다. 현재 외벽은 그대로 둔 상태로 창문 유리와 내부 바닥과 벽, 천장 공사 등을 마쳤다.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책놀이터, 요가와 댄스 등 몸놀이가 가능한 강의실,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 시설과 가구, 입주 기업(개인)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생활문화추진협의회와 논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삶의 학교'로 차근차근 구체적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농화학관(지상2층·2천977㎡)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로 마련한다. 문화예술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기업, 밴드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수제 맥주제조창 등 다채로운 입주 대상과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아직 철거 작업 전으로, 오는 11월 이후 본격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농생대 캠퍼스는 근대 농업발전의 산실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한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 중"이라면서 "적극적인 주민 공동체를 발굴 양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27.6 X 20.2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문화

도문화의 전당 배출 '제1기 경기 영아티스트'

박진형군 중앙콩쿠르 1위 빛났다



김준호 이어 국내외 경연서 잇단 낭보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이 주최한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의 제1기 영아티스트였던 박진형(20·사진)군이 지난 24일 치러진 제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본선에서 1위에 입상해 화제다. 우리나라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중앙음악콩쿠르는 조수미, 최현수, 김대진 등 세계적 음악가를 배출한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경연무대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음악가 양성사업이다. 클래식 부문 유망 신예를 선발해 연주 기회와 멘토링, 홍보 등을 제공했다.

지난해 뽑혔던 경기 영아티스트들이 최근 잇달아 국내외 콩쿠르 무대에서 낭보를 전하고 있다. 박진형군은 앞서 제17회 바르샤바 국제 쇼팽 피아노콩쿠르 본선과 제18회 산탄테르 국제 콩쿠르 피아노부문 결선에도 진출한 바 있다. 함께 선발됐던 김준호군도 제55회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입상에 이어 제4회 야마하 음악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박군은 "협연경험이 부족한 탓에 파이널무대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으나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콩쿠르 무대에서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재훈 사장은 "도문화의전당이 훌륭한 아티스트 탄생에 일조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 "앞으로도 세계무대를 향한 아티스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영아티스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문화의전당은 오는 31일까지 제2기 영아티스트를 모집한다. 류설아기자

27.6 X 10.2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7면 인물

성남소방서, 경기도 종합평가 1위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가 2015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 성남소방서는 2015 청렴시책 우수기관 선정, 2014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3 소방전술경연대회 종합 1위 등 행정 및 현장활동에서 앞서가는 성남소방서의 전통을 입증했다. 한편, 2위는 수원소방서, 3위는 파주소방서가 각각 수상했다. 성남=강현숙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임국빈 서장이 2015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3 X 5.7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보건/의료

포괄간호서비스 도내 6개 공공병원서 받는다

전문 인력이 간호·간병 서비스
내달부터 총병상의 1/3로 확대

비용 1/10로 줄고 만족도 높아
한국형 간병문화 개선 기대



경기도의료원이 다음달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포괄간호서비스 모습.

경기도의료원(의료원장 유병욱)이 수원을 비롯한 도내 총 6개 공공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신설 및 확대,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간병비용이 한달 기준 10분의 1가량으로 대폭 줄고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간병문화가 개선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오는 4월부터 도내 6개 공공병원의 총 1천10 병상 중 3분의1에 달하는 336병상을 포괄간호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27일 도의료원에 따르면 수원병원은 기존 46병상에서 92병상, 의정부병원은 36병상에서 72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파주병원 47병상, 이천 51병상, 안성 32병상, 포천 42병상 등 도내 4개 공공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3년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도의회가 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어 도는 2015년에 시설 개선 및 홍보 명목으로 4억5천200만원, 2016년에 인건비 등 서비스 시행을 위한 예산 16억9천600만원을 각각 투입한 상태다. 이에 도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수원·의정부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였고 6개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공사를 각각 진행했다.

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시범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이용 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수원과 의정부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입원환자는 2014년 4월~12월 1만6천930명, 2015년 1~9월 1만6천678명이었다. 도의료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 84점을 기록했다. 또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81점으로 역시 높은 점수를 올렸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 요인은 간병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도의료원에 따르면 환자가 간병인에게 지급했던 간병 비용은 월평균 250만원인데 반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비용은 월 20만원(1일 6천300원) 내외로 크게 준다. 환자 간병을 전담했던 보호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장점이다.

또 지난해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꼽힌 '한국형 간병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전담 전문 인력이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같은 병실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민간병원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적자 부담과 간호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쉽게 도입할 수 없다"면서 "공공병원으로서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도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22.8 X 19.7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0면 스포츠

경기체고, 고등부 '주먹왕'

경기도학생체전 복싱 5체급 석권

경기체고가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복싱 고등부에서 5체급을 석권했다.

경기체고의 한진우는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제97회 전국체전 복싱 경기도대표 1차선발전을 겸해 열린 고등부 91㎏급 결승에서 정가현(광주중앙고)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장현동(경기체고)은 81㎏급 결승서 장건하(의정부 효자고)를 누르고 우승했으며, 75㎏급 황산익, 69㎏급 박재만, 64㎏급 하성규(이상 경기체고)도 나란히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또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복싱 도대표 2차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에서는 김철현(남양중 천마중)이 75㎏급 결승에서 임동건(시흥 군서중)을 누르고 1위에 올랐고, 70㎏급 서강윤(용인 영문중), 66㎏급 모건우(성남 금광중), 60㎏급 이유성(수원 수일중)도 나란히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홍완식기자

6.7 X 11.0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1면 스포츠

道장애인체육회 제1차 직원역량강화교육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양평군 일원에서 2016년 제1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무처 임·직원 등 25명이 참석해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생활밀착형의 장애인체육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직원들의 세분화되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 발표와 직원별 중장기적 업무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장호철 사무처장은 "직원분들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거듭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14.2 X 4.7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1면 스포츠

道체육회 '경기도요트학교' 운영

경기도체육회가 2016 경기도요트학교를 운영한다.

도체육회와 도요트협회는 최근 경기도요트학교 교육장인 김포 아라마리나를 방문해 교육장비와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부터 문을 연 경기도요트학교는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이론과 실전경험을 토대로 요트 전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요트학교는 입문부터 고급까지 과정을 다양화해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년간 전문성을 쌓은 우수 요트교육기관으로 손꼽힌다. 최근 요트에 매료된 많은 동호인들이 요트학교를 통해 전문교육을 수강하면서 요트인구의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민들이 다양한 해양 문화레저를 즐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14.2 X 4.6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2면 오피니언

공공뮤지엄 경영합리화 문제

천자춘추



김찬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전지구적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IMF체제하의 대처 수상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이들의 방만 경영을 다잡고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기는 입장으로 국내에서는 문민정부의 이래 국가의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선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가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공공뮤지엄의 민영화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민영화 논의이다.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던 미술관을 책임경영기관으로 그리고 다시 민간법인으로 전환코자 하고 있지만 수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술계의 반발이 심하여 구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영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뮤지엄을 민간조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미 자신들의 정책을 실패로 선언한 바 있다. 그 실효성보다는 연구기능 축소, 전시의 질적 저하 등 뮤지엄의 본령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업주의적 폐해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의 '공공기관경영합리화 용역과제보고'에 따르면, 기관의 통폐합 등 강력한 합리화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도립뮤지엄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초안으로 심도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지만 뮤지엄을 단순한 '전시시설'로 이해하고, 과다한 관리운영비의 해소 방안에만 촛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뮤지엄은 전시시설이 아니라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민간이나 시장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사립뮤지엄들의 극심한 경영란은 그 반증이다. 시장실패 영역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부담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기본이다. 대표적 시장실패의 영역인 뮤지엄을 민영화나 민간위탁할 경우, 그 본령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구한 뮤지엄의 역사를 가진 구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시장과 경제논리의 도전을 받더라도 본령이 흔들리진 않는다. 재정자립도 제고나 민간경영방식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뮤지엄의 튼실한 기초를 위해선 컬렉션과 전문인력 확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단계이다. 뮤지엄은 국가문화유산의 R&D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1.9 X 18.6 cm

경기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면 사설/칼럼

道, AI 특별 방역 기간 중에 뚫렸다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또 뚫렸다. 이천시의 한 농가다. 죽은 종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다.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27일 0시부터 28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적용대상은 경기도내 오리농장 115곳, 도축장 2곳, 사료공장 12곳과 차량 6천298대다. 경기도 소재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와 오리알에 대해서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이천 해당 농장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0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됐다. 살처분 될 가금류의 양은 AI의 전파 여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도내 농가의 가금류 수출도 전면 중단됐다. 지난달 28일자로 어렵게 회복했던 AI 청정국 지위다. 도내 계란생산업체가 홍콩에 계란을 수출하기로 약정하는 등 수출의 길도 열려가고 있던 터였다. 축산 농가의 모든 기대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왜 또, 왜 경기도에서 뚫렸는가.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신하지 않았나.

올 1월 21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AI 발생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만, 홍콩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곳에서의 철새 이동으로 AI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월까지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키로 했다. 12개 위험지역을 자체 지정해 예찰 활동과 분변 모니터링도 벌인다고 했다. 그 위험 지역에는 이천 복하천도 있었다. 그랬는데 뚫렸다.

방역 당국은 이번 이천 AI 발생 경로를 철새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 농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사실이라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대처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게 한다. 연구소는 철새가 날아드는 '하늘'을 막고 있었는데, AI는 사람과 장비가 돌아다니는 '도로'로 들어왔다는 얘기다. 감염 경로에 대한 예측이 틀렸거나 방역 비중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어느 쪽이든 방역은 실패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경로를 찾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AI는 늘 참혹하다. 고립된 농가는 생명 있는 가금류를 땅속에 묻는다. 투입된 방역 인력들은 밤낮없이 사투를 벌인다. 통제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한다. 한 마디로 아비규환이다. 그런데 이런 아비규환 때문에 덮이고 넘어가는 핵심이 있다. 감염 경로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 허점과 문제점을 짚어내는 작업이 소홀히 다뤄졌다. 방역 당국의 노고(勞苦) 앞에 방역 당국의 책임(責任)이 생략되고 넘어간 것이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반드시 그 구멍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곳이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확인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경기도의 AI 정책이 이번 말고도 계속 뚫릴 것 같기 때문이다.

13.8 X 14.6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면 종합

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경기연정 시험대 올랐다

NEWS&HACK 새누리당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탄생시킨 여야 연합정치(경기연정)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마련됐다.

현재 25개 달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안이 경기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경기연정 실행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실행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본보 3월 9일자 1면 보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도는 5억5천만 원을 들여 엘리오앤컴페니사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가 통폐합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신설되고, 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 경기연구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이 통폐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통폐합돼 경기공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표 참조

이번 구조조정안은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했던 터라 경기연정이 본사보다 덩치가 커진 계열사의 군살을 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이 서명한 경기연정 합의문에는 산하기관 경영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경기도의회는 당초 3억5천만 원이었던 용역 예산을 2억 원 더 늘려줬다.

무엇보다 경기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전 정무부지사)직을 야당이 차지하고 예산 편성 권한 일부가 도의원에게 넘겨지는 등 권한 배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정치실험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연정이 없었더라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연구조차 해보기 힘든 영역으로 남게 됐을 것"이라며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새로운 대표단이 선출되는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통폐합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경영합리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만구·이복진기자

11.3 X 24.8 cm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안

폐지 6곳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예술단 법인 잔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통폐합 10곳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 경기경제산업진흥원(신설)
	한국도자재단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	☞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공사(신설)
기능 조정 4곳	경기양주섬유센터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기센터 소상공인 지원기능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일부 병원 확장 이전)	
	경기관광공사(재단으로 변경)	
자체 경영 개선 4곳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B면 종합

제품강매 갑질 논란 오토데스크 道불공정거래 조사 경고성 발언

법무법인 "이러면 道곤란" 발언 道, 신고인 자격 공정위에 신고

제품강매, 일방적인 판매정책 변경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토데스크가 경기도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지난 21일 오토데스크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오토데스크가 고용한 D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부정과 함께 '경기도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이러면 경기도가 곤란하실텐데' 등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법무법인은 오토데스크에 고용된만큼 제 몫을 한 것이겠지만 공공기관이 민원을 접수받아 정당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D법무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기도가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신고 3건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정품제품 강매, 실사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프로그램 판매정책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법무법인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8일 공정위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을 예정"이라면서 "파견 인력은 공정거래협력관으로 불공정거래판단센터 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11.3 X 15.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B면 종합

200명 라이더 북적… DMZ 자전거투어 성황

매월 넷째주 일요일 5회 개최

금단의 땅, DMZ에서 열린 올해 첫 자전거 투어가 성황리에 열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임진각에서 '2016년도 제1회 DMZ자전거 투어'가 열렸다.

DMZ 자전거 투어는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1만5천명의 인원이 다녀갔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파주 임진각에는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통선의 봄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명의 라이더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이날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일대 코스를 달렸다. 특히, 행사는 참가자들의 능력에 맞춰 17.2㎞ 중급 코스와 14㎞의 초급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올해 DMZ자전거 투어를 이번 3월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다음달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달에 열리는 DMZ 자전거 투어 행사의 참가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조윤성기자

11.3 X 12.2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도내 시장·군수 60% 재산 증가… 정찬민, 4억7천만원 늘어

<용인시장>

도내 시장·군수 재산 들여다보니
이교범 하남시장 최고 자산가
김규선 연천군수 4억 감소

경기도 시장·군수 10명 중 6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이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장은 김규선 연천구수였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자산가에 올랐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경기도 시장·군수 29명 가운데 19명(65.5%)은 늘고 10명(34.4%)은 줄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양주시와 구리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으로 4억7천291만5천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으로는 정 시장이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의 토지의 지분면적이 늘어난 것(증여에 따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성기 가평군수의 재산이 2억4천889만8천 원이 증가했고, 이교범 하남시장의 재산이 2억891만4천 원 증가됐다.

경기도 시장군수 재산변동 사항 단위: 만원

순위	시군명	이름	종전액	현재액	증감규모
1	용인시	정찬민	106,695	153,987	47,291
2	가평군	김성기	38,098	62,988	24,889
3	하남시	이교범	782,242	803,134	20,891
4	김포시	유영록	38,609	58,165	19,556
5	의왕시	김성제	51,788	65,828	14,040
6	부천시	김만수	70,476	81,390	10,914
7	성남시	이재명	223,302	232,253	8,950
8	수원시	염태영	91,607	99,209	7,601
9	군포시	김윤주	47,473	54,270	6,797
10	양평군	김선교	30,634	36,541	5,907
11	광명시	양기대	62,567	68,212	5,644
12	평택시	공재광	72,541	77,623	5,082
13	이천시	조병돈	125,887	130,551	4,663
14	안산시	제종길	27,956	30,948	2,991
15	남양주	이석우	201,514	204,124	2,610
16	파주시	이재홍	97,675	100,239	2,564
17	동두천시	오세창	30,223	31,649	1,426
18	오산시	곽상욱	42,562	43,669	1,106
19	고양시	최 성	78,273	78,703	429
20	시흥시	김윤식	5,337	4,891	-445
21	과천시	신계용	54,194	52,686	-1,508
22	화성시	채인석	68,296	66,687	-1,609
23	안양시	이필운	121,115	118,739	-2,376
24	여주시	원경희	30,794	27,398	-3,395
25	광주시	조억동	74,282	67,875	-6,406
26	안성시	황은성	345,739	339,296	-6,443
27	포천시	서장원	56,048	47,175	-8,873
28	의정부시	안병용	74,993	53,513	-21,479
29	연천군	김규선	294,356	252,308	-42,047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양주·구리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김 군수의 재산은 차남의 아파트 구입과 결혼식 축의금, 소득증가 등으로 부동산과 예금자산이 늘어났고, 이 시장의 재산은 하남시 소재의 토지를 신규로 매입한 것과 소유 토지의 가액변동으로 재산이 늘어났다.

이들 다음으로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1억9천556만 원, 김성제 의왕시장 1억4천40만 원, 김만수 부천시장 1억914만 원, 이재명 성남시장 8천950만 원, 염태영 수원시장 7천600만 원의 재산이 전년 대비 늘었다.

가장 많은 재산이 줄어든 지자체장은 김규선 연천군수로, 4억2천47만9천 원의 재산이 줄었다. 이는 특별한 재산변동에 따른 것이 아닌, 김 군수의 자녀들이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한 탓에 재산규모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김 군수에 이어 안병용 의정부시장 2억1천479만 원, 서장원 포천시장 8천873만 원의 재산이 각각 줄었다.

도내 지자체장 중 최고의 자산가에는 80억3천134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교범 하남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의 재산규모는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다. 뒤이어 황은성 안성시장이 33억9천296만 원, 김규선 연천군수 25억2천308만 원, 이재명 성남시장 22억3천302만 원, 이석우 남양주시장 20억4천124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적은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지자체장은 김윤식 시흥시장(4천891만8천 원)으로 조사됐다. 천의현·양진영기자

32.6 X 17.0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남경필 지사의 파안대소 남경필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부지사(행정1·2, 사회통합), 실국장,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식회사 추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청

17.4 X 9.3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道, 인사권 남용 구리시 간부 5명 중징계 요구

市 "매년 1월 승진 단행" 반발

경기도가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급이상 구리시 간부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구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승진 등 대규모 인사를 한 구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22일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과 인사담당자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도는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인사라인에 있던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5급의 경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승진인사를 했다"며 "이는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징계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그 해 승진 인사를 한꺼번에 해왔고 부단체장은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중징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영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성인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수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행자부도 '관련 규정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안으로, 한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백·조윤성기자

11.5 X 11.0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당정, 누리과정 정부 지원예산 지자체 용도변경 막는 법 제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 항목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부금에 포함시켜 지원했으나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새누리당 당 정책위는 27일 당·정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항목 없이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지방정부에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해마다 마찰을 빚어왔다.

당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협의회를 개최, 누리과정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정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경기자

5.7 X 20.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면 정치

▶▶1면서 계속 경기연정 시험대

경기연정실행위는 이르면 이번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경영 합리화 방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오완석 도의회 더민주 수석부대표(경기연정실행위원)는 "공공성, 효과성, 업무의 중복성 등을 감안해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양당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5월 연정실행위 산하 공기업 합리화 추진단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태길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경기연정실행위원)는 "통폐합 및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와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1 X 3.2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6면 경제

지자체 발간실 대형화… 지역 인쇄업체 경영난

〈자체 운영 인쇄소〉

道, 상주 공무원만 10여명
외주 물량도 장애인업체 몫
인쇄업계 "축소·폐지해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이 지역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 발간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인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자체 발간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 지자체 중 11곳(65%)이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발간실이란 지자체가 자체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 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 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 인쇄소를 말한다.

발간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 등이다.

이중 경기, 전북, 대전, 광주 지역의 경우 평균 직원 수 및 보유장비 수준이 일반 인쇄중소기업의 규모보다 크게 운영되고 있어 지역 인쇄업체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08년 18억 원을 들여 디지털인쇄시스템을 구입하는가 하면 전국 최다인 10.3명(최근 3년 평균)의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대형인쇄기업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인쇄물의 78.5%를 자체 발간하고 있는데다 발간금액도 12억2천만 원으로 전국 자체 발간금액(38억 원)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장비수리비, 부서운영비 등 고정비용으로 연 평균 6억4천만 원(최근 3년 19억1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계다가 지난해 전체 발간금액의 21.4%를 차지한 외주 발주를 장애인 보훈단체에 100% 수의계약하고 있어, 지역 인쇄기업들은 경기도 관련 인쇄물의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쇄업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 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해 지역 내 인쇄 기업들에게 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완표 이사장은 "경기도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무등록 인쇄소를 차려놓고 뿌리산업인 인쇄산업을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고사 직전인 인쇄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간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장 발간실을 폐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시간을 두고 축소하고 있다"며 "지역 인쇄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

23.0 X 14.5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6면 경제

농기원, DMZ 곤충자원 특별전시회

道북부청사서 내달 8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음달 8일까지 경기도 북부청사 1층에서 DMZ 곤충자원 산업화 연구 10주년을 맞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경기도 곤충산업 발전상과 멸종위종 복원사업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연천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DMZ 접경지역에서 서식을 확인한 곤충과 사육기술을 개발한 곤충의 표본과 실물 등이 전시돼 지난 10년 간 연구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단위생식(암컷만으로 번식) 등 특이한 생태특성을 가진 '대벌레', 깍지벌레 등 해충 방제에 탁월한 천적곤충 '어리줄풀잠자리'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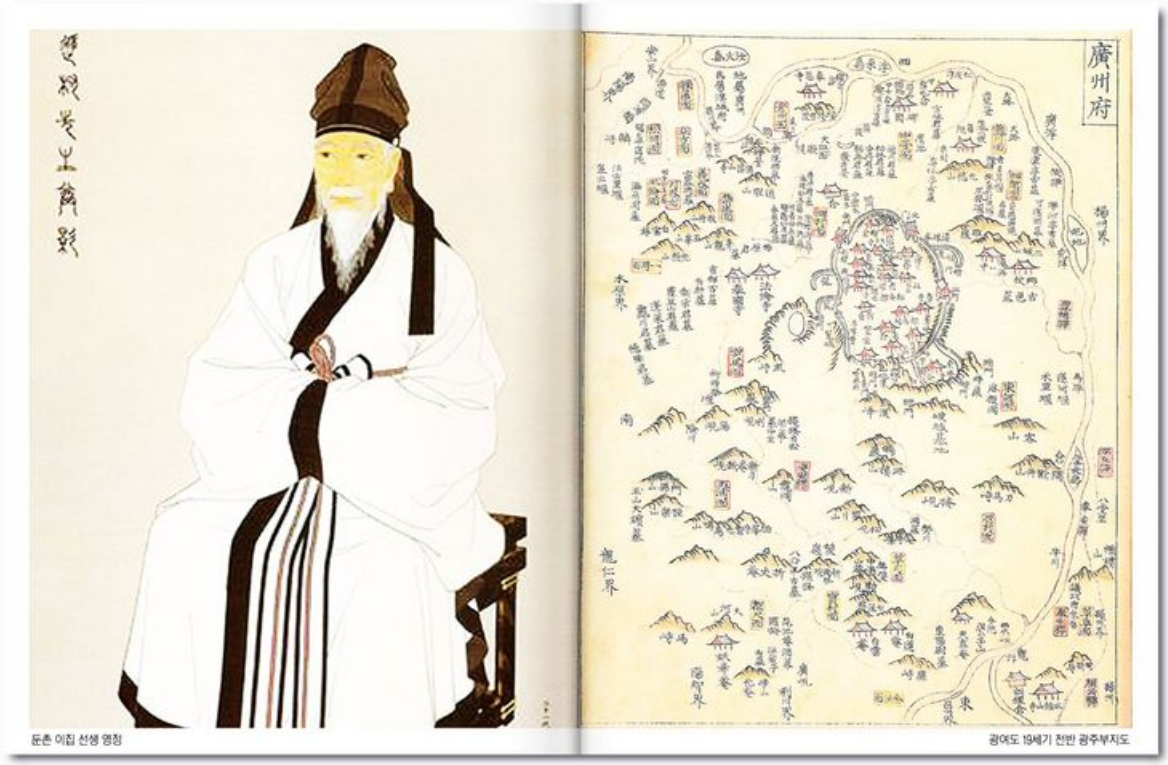
이밖에도 DMZ 서식곤충과 왕은점표범나비 표본, 우리나라 멸종위기곤충 사진전,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방산개구리, 곤충의 4계절을 입체화한 디오라마 등 다양한 곤충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임재욱 원장은 "대벌레와 어리줄풀잠자리 등 학습체험용 곤충과 천적곤충을 개발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 복원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로 경기도 곤충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

10.4 X 10.4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9면 기획



둔촌 이집 선생 영정 | 광여도 19세기 전반 광주부지도

지방 관리서 조선 최고 문벌로… 문·무 급제자 441명 배출

시대의 전환기를 이끈 경기인

경기도를 대표하는 성씨들 ⑦ 광주이씨(廣州李氏)

무신난을 계기로 고려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먼저 귀족사회가 붕괴됐고, 농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으며, 과거를 통해 인재를 배출하는 관료제도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됐다. 더구나 불교의 지위가 추락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상적 지주가 요구돼 송나라 때 유학인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됐다. 이 주자학은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유교철학으로서 새로운 국가의 통치이념과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가 됐다.

고려후기에도 귀족세력과 권문세가들은 여전히 경기도를 기반으로,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니 파평윤씨, 공암허씨, 인주이씨, 황려민씨, 남양홍씨, 서원염씨, 행주기씨, 양성이씨, 덕수이씨 등이 대표적 경기지역의 가문들이다. 한편 성리학적 사고와 과거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들도 정국의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대부는 무신난 이후에 등장한 신흥관료층으로서 학자적 관료이다. 이들은 대개 향리출신의 재향지주로서 권문세가와는 경제적·정치적·사상적으로 이해를 달리했으며, 농장 노비제의 개혁을 주장했고 유교적 전통과 학문적 배경, 친명반원(親明反元)의 성향으로 고려왕조 붕괴의 주역으로서 조선건국의 이념을 제시했고 학문과 행정적으로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을 주도한 세력이다.

당시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지식층들이 배출되는 동시에 기왕의 권문세가, 귀족들도 관료체제하에 편입되면서 함께 성장했다. 광주이씨, 한양조씨, 여흥민씨, 죽산박씨, 파평윤씨, 공암허씨 등의 가문들은 조선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인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했다.

고려시대 경기도는 수도인 개성 인근이었으며, 현재 경기남부 지방은 양광도(楊廣道)였고, 광주도 양광도에 속했다.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개경·3경·4도호부·8목-주부군현-촌, 향·소·부곡으로 이뤄졌는데, 광주는 전국에 설치된 8개의 목(牧) 중 하나로서 지방행정 체계의 실질적 중심지였으며,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광주이씨는 이렇게 큰 고을에 기반을 둔 토성(土姓)이었는데 고려후기에는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해 조선 개국에 절대적 지주가 됐고, 조선 초 정국을 주도했다.

광주 향리 이당(李唐)

'광주이씨세보(廣州李氏世譜)'에 의하면 "시조 이자성(李自成)은 신라시대 칠원(현재의 경상남도 함안군)에 기반을 둔 지방호족으로서 칠원성의 성주로 대대로 살고 있었으며, 신라 멸망시 고려에 항복하지 않고 함거하다 왕건에 의해 일족이 모두 화안(推安 : 현재의 경기도 광주지역)의 관노비가 됐다"고 전한다. 그 후 그 후손들은 대대로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를 이뤘고 신분상승을 꾀하게 된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광주이씨 가문을 현창시킨 인물은 이당(李唐)이며, 광주이씨의 실질적 시조이다.

이당은 고려 말 광주의 아전(衙前)으로서 국자감(國子監) 생원시에 합격했고 조선 건국 후에는 자손들의 명성으로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증직됐다. 광주에서 대대로 살던 광주이씨 가문은 이당 대에 이르러 번성하게 되는데, 이당은 광주의 향리였으며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중소지주로서 당시 지역의 유력한 권세가와 혼인관계를 통해 신분상승을 꾀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주이씨세보'에 광주의 아전인 이당이 태수의 딸과 혼인하는 설화가 전하는 데 고대 혼인설화에 등장하는 내용과 흡사하다. 이당은 당시 광주의 권세가인 인화이씨(仁華李氏)와 혼인해 신분 상승을 이루고 이후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당은 인화이씨를 부인으로 맞아 봉(逢), 집(集), 희령(希齡), 자령(自齡), 성(省) 등 5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둔촌 이집(李集)

이당의 차남 이집(李集·1327~1387)은 1355년(공민왕 4)에 문과에 급제한 뒤 공민왕 때 봉순대부 판전교시사에 올랐다. 1368년(공민왕 17) 신돈(辛旽)을 논박했다가 화가 미치자 이를 피해 아버지를 업고 새재를 넘어 영천(永川)에 살고 있는 동년(同年 : 같은 해에 과거에 함께 합격한 사람) 최원도(崔元道)의 집에 피신했다가 공민왕 20년에 신돈이 실각하자 돌아왔다.



▲ 경북 영천에 위치한 시조 이당의 묘역에 세운 비석.

신흥사대부 광주 이씨

시조 이당, 유력 권세가와 혼인
신분상승으로 중앙 정계 진출
5형제, 문과 급제 명문가 기틀

위민정신 실천한 둔촌 이집

공민왕 시기, 신돈 논박 후 은거
이색·정몽주·정도전 학문 교류
민생 돌보며 은자적 생활

팔극조정 등 조선 정국 좌지우지

고려 말 혼란기 문중으로 성장
조선왕조 개창·세조 공신 배출
영의정·우의정 등 주요직 차지



둔촌 이집선생의 묘.

3년 동안의 은둔생활은 그의 생애에 큰 분수령이 돼, 이름과 자호(字號)를 모두 개명하고 이후 여주의 천녕현(川寧縣 : 현재의 흥천면)에 물러가 은거하면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둔촌 이집의 본명은 원명(元齡), 자는 성노(成老), 호는 묵암자(默庵子)였으나 이때 '명자집의 (孟子集義)'의 집(集) 자를 취해 이름으로 했고, '호연지기'의 호연(浩然)을 취해 자(字)로, 둔촌(遁村)을 호로 삼았다.

이집은 사람됨이 의롭고, 말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행실은 방정해 당시 학자들이 크게 존경했다. 안축(安軸)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고, 목은 이색(李穡), 포은 정몽주(鄭夢周), 척약재 김구용(金九容), 도은 이숭인(李崇仁), 삼봉 정도전(鄭道傳)과는 막역한 사이로 서로 허물없이 왕래하면서 교유한 것으로 보아 그의 사상과 학문은 당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이 그의 호에서 따온 지명인 것으로 볼 때 둔촌 이집이 역사적 인물로서의 중요성을 알게 해 준다.

둔촌 이집의 관료생활은 크게 현달하지 못했으나, 현실 정세, 농민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연민, 왜구의 침략으로 노략질 당하는 민생의 여러 움과 나라에 대한 걱정 등이 단편적으로 나마 기록으로 보이고 있어 위민정치(爲民政治)를 기본으로 하는 성리학자의 자세를 살필 수 있다. 반면에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대체로 교유하던 학자들과 나눈 시문들이며, 그 내용도 주로 과거에 함께 즐기던 교우들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자신의 외롭고 쓸라한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모습 등 은자(隱者)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 곧이어 발생하는 고려 멸망에 대한 절의를 지키려는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팔극조정(八克朝廷)

둔촌 이집의 은자적 성향과는 달리 후손들은 조선조 초중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둔촌의 아들 3형제 지직(之直), 지강(之剛), 지유(之柔)는 고려 말에 모두 문과에 급제,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고, 이어 세조의 집권을 도와 다수의 공신을 배출하며 조선 전기 최고의 가문이 된다. 조선의 양반사회는 과거에 합격해 사로(仕路)에 진출하는 것이 개인이나, 문중 모두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집의 아들 3형제와 큰 아들 이지직의 아들 3형제, 8명의 손자가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는 경사는 광주이씨 가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으며, 이렇듯 후손들이 크게 현창하게 된 것은 경복 영천에 위치한 시조 이당의 묘소로 까지 이어져 그의 묘소는 조선 8대 명당지로 지금까지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지직의 차남인 인손(仁孫, 忠翊公)이 우의정을 역임한 것을 필두로 그의 큰아들 극배(克培)는 성종 때 영의정에, 차자 극감(克堪)은 형조판서, 3자 극증(克增)이 병조판서, 4자 극돈(克墩)이 좌찬성, 5자 극균(克均)이 우의정을 각각 역임하는 등 세조 이후 성종과 연산군 치세 동안 이들 5형제가 정국을 좌지우지할 정도였다.

또한 이 무렵 조정의 어전회의에는 광주이씨 가문의 극(克)자 항렬 8명이 영의정에서부터 내리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이 팔극조정(八克朝廷 : 극규-병조참의, 극배-영의정, 극감-형조판서, 극증-병조판서, 극균-우의정, 극기-공조판서, 극견-좌통례)이란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조선 초 최고의 문벌가문

향리 출신이던 광주이씨는 광주를 배경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분상승의 기회를 갖게 됐으며, 고려 말 조선 초의 혼란기를 선도하는 문중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신진사대부로서 학자적 관료로서의 자질과 탈귀족적인 관료주의와 위민정책, 그리고 주자학적인 왕도사상을 강조해 조선왕조를 개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광주이씨는 조선조에서 문과급제자 196명, 무과 급제자 245명, 정승 5명, 문형(文衡 :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1명을 배출했다. 조선 초 문신 성현(成俔)은 광주이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당금문벌지성 광주이씨위최(當今門閥之盛 廣州李氏爲最 : 지금 문벌이 성하기로는 광주이씨가 최고이다)'라 했으니 조선 초 광주이씨의 위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덕호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 경영협력실장

34.9 X 46.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0면 스포츠

도장애인체육회, 제1차 직원역량 강화교육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25~26일 양평군 일원에서 2016년 제1차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및 김기홍 이사 등 25명의 임직원이 참석, 청렴선포식 및 서약식을 시작으로 청렴교육, 생활 밀착형의 장애인체육 발전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사무처 직원들은 또 세분화되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 발표와 직원별 중장기적 업무 추진 계획 등을 제시, 공유하며 도장애인체육회의 향후 계획 등도 논의했다.

장호철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원기자

7.5 X 10.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1면 스포츠

경기도청, 5승 6패 '공동 7위'

컬링 세계선수권 경기도청이 '올림픽 전초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공동 7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기도청은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스위프트 커런트에서 열린 2016 여자 세계컬링 선수권대회 풀리그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7-5로 제압했으나, 마지막상대인 스위스에 5-7로 패했다.

11개국이 참가해 풀리그 예선전을 벌인 이번대회서 한국은 5승 6패를 기록, 덴마크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상위 4개팀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출전 포인트가 걸린 중요한 대회에서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성과다.

전날에는 세계랭킹 1위 캐나다팀을 이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오창원기자

5.6 X 11.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1면 스포츠

유예은·이주희, 여중·여초부 4관왕

양궁 유예은(수원 창룡중)과 이주희(여주 여흥초)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경기도 대표 2차선발전 여중부 및 여초부서 각각 4관왕에 올랐다.

유예은은 27일 수원 양궁경기장서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최종일 여중부 경기결과 60m 경기서 339점을, 50m경기서 329점을 각각 명중시키며 우승하는 등 고르게 선전하며 개인종합(1천335점)과 단체종합(3천978점)까지 석권하며 금메달 4개를 수확했다.

이주희는 여초부 30m경기서 349점을, 25m서 352점을 각각 기록하며 1위에 오른뒤 개인종합(1천393점)과 단체종합(4천116점)까지 제패하며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이동민(수원원천중)은 남중부 60m경기서 332점을, 개인종합에서 1천332점을, 단체종합에서 3천902점을 각각 마크하며 정상에 올라 3관왕을 차지했고, 원종혁(원천중)은 남중부 50m경기서 329점을, 40m서 340점을 각각 기록하며 우승한뒤 단체종합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대한(원천중)은 남중부 30m서 345점을, 최윤영(창룡중)은 여중부 40m서 337점을 각각 명중시키며 정상에 올라 단체종합 포함, 2개의 금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이밖에 남초부에서는 진효성(하남천현초)이 개인종합(1천366점)과 단체종합(4천57점)에서 우승했고 박찬민(안산 성포초)은 25m(346점)와 20m(346점)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찬우(천현초)는 남초부 30m서 343점을, 김은지(여흥초)는 여초부 20m서 355점을 각각 기록하며 금메달을 추가해 단체종합 포함,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오창원기자

10.7 X 12.2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1면 스포츠

왕영건, 중등부 48kg급 제패

복싱 왕영건(평택중)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복싱 경기도대표 2차 선발전 48kg급에서 우승했다.

왕영건은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제4회 김포시장배를 겸해 열린 대회 최종일 중등부 48kg급 결승경기서 김지훈(평택 청담중)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1학년생인 왕영건은 2,3학년 선배들을 따돌리고 우승함으로써 기대주로 부상했다.

시흥 군서중, 광주중, 성남 금광중은 2명씩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군서중의 박승민은 57kg급서 박성민(용인 포곡중)을, 김성혁은 63kg급서 권기용(용인 영문중)을 각각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고, 광주중의 김영훈은 54kg급서 김용준(남양주 천마중)을, 조준영은 52kg급서 곽하늘(금광중)을 각각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금광중은 모건우가 66kg급서 조승호(곤포 당동중)를, 강은찬은 46kg급서 김성한(광주중)을 각각 꺾고 우승했다.

이밖에 아진(의정부중)은 38kg급서, 김민서(포곡중)는 42kg급서, 전승현(의정부 송양중)은 50kg급서, 이유성(수원 수일중)은 60kg급서, 서강윤(영문중)은 70kg급서, 김철현(천마중)은 75kg급서 각각 1위에 올랐다.

한편 경기체고는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및 제97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서 한진우(91kg급), 장현동(81kg급), 황산익(75kg급), 박재만(69kg급), 하성규(64kg급)등 5명이 우승했다. 오창원기자

10.7 X 11.3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문화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커넥션 아메리카서 120억 실적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 '게임커넥션 아메리카 2016(Game Connection America 2016)'에 참가해 약 1천42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 상당)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내 10개 게임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 실적은 지난해 행사 763만 달러(89억2천710만 원) 대비 37%가 성장한 성과다.

경기도 게임기업의 비즈니스 상담 161건을 지원했으며, 지원 기업 중 VR(가상현실)을 앞세운 'DEC 코리아'의 '프로젝트 M' '플랜츠 워 VR', 최신 모바일게임 트렌드를 반영한 '웹젠'의 '뮤 오리진'이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창조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SF MMORPG(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코즈믹 온라인', 북미 시장을 겨냥한 캐릭터 디자인이 돋보이는 '해피앤스마일(Happy&Smile)'은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성기자

7.5 X 9.2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문화

道박물관, 초등생 4~6학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집

경기도박물관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옛 문화 속 아름다움'을 오는 11월26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며 총 3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수 당 정원은 25명으로 총 7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옛 문화 속 아름다움'은 학생들이 의·식·주 문화가 담긴 유물을 관찰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짜여졌다. 세부 교육 내용은 집의 역사와 의미, 그릇에 담긴 과학과 아름다움, 옷의 의미와 과학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신청은 도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net.gg.cf.kr)에서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288-5836. 김동성기자

7.5 X 6.6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문화

박진형 제1기 경기 영아티스트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배출한 제1기 영아티스트 박진형(20·사진)군이 '제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본선에서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음악콩쿠르는 우리나라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로, 조수미, 최현수, 김대진 등 세계적 음악가를 배출한 국내 대표 음악경연무대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음악가 양성사업으로, 유망한 신예들을 뽑아 독주회, 오케스트라 협연, 찾아가는 공연,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영재 아트티스로 길러내는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다.



한편 도 문화의전당은 '제2기 영아티스트'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대상은 만 14~25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로, 응시 방법은 도 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31-230-3273.

김동성기자

10.3 X 11.7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오피니언

대부업 증가, 금융안전망 필요

최남춘 경제부

지난해 경기지역내 대부업 대출은 전년에 비해 19.4%(5천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 연 3~6%까지 떨어졌고, 소액대출이 있는데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은 연 3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문을 더 두드렸다는 이야기다.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7~10등급) 등급이 지난해 2조2천840억 원을 빌려 전체 대부금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차입자수도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대출은 1만4천171명(1천164억 원)인 반면 6등급 이하는 37만3천467명(2조8천955억 원)에 달한다. 비록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지만 높은 금리에 따른 손해는 자생력을 잃게 된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이 이자가 비싼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민간소비 침체, 영세 자영업 부실화,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관련 재정부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문에 경기도는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굿모닝론'을 지난해 2월 도입했다.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금리 1%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굿모닝론의 영향은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굿모닝론의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굿모닝론과 같은 정책을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

12.6 X 11.6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1면 사회

입주자대표 구성전에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가능

道,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추진
단지내 보육시설운영방식 개선

앞으로 경기지역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이전에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와 어린이집 오픈 시점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보육시설 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해서다.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탓에 입주 초기 단지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하남 미사지구 A아파트는 오는 5월 이후 입주할 될 경우 최소 6개월 가량 단지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빨라야 올 연말께 문을 열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입주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만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려면 최소 2~3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해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진 후에도 사업자 선정까지 2~3개월이 더 필요하다. 최소 6개월 가량 단지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보육시설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 최초 위탁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또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3개월 전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입주와 동시에 또는 입주 후 1~2개월 이내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 수 있게 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

23.0 X 8.6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2면 사회



道 전역 확산 막아라 이천시 한 종오리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경기도 전역에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27일 오후 이천시 덕평IC 인근 거점소독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이천 오리농장 AI 발생… 확산 저지 초비상

전남지역 유입 가능성 높아
市, 농가 주변 이동제한 조치

이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27일 시 전역으로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 이천지역의 AI 발생과 관련, 경기도 방역대책상황실은 전남지역에서 오리를 공급해 온 것을 AI 유입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전날 방제차 2대로 AI가 나온 마장면 농가 일대를 방역한 데 이어 이날 4대를 추가 동원해 총 6대로 이천시 전역의 가금류 농가를 방역하고 있다. 시는 농협 등에 방제차를 추가로 요청, 방역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천지역에는 가금류 농가 85곳에서 526만 7천여 수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초소는 마장면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등 2곳을 유지,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짐에 따라 AI 발생 농가는 물론 관내 나머지 오리 사육 농가 3곳의 입구도 통제됐다.

도 AI방역대책상황실은 이천 마장면의 AI 발생농장이 전남지역의 오리 가공·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리를 공급해 온 것이 AI의 도내 유입원인으로 추정, 역학관계를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지난해 11월28일까지 AI가 발생한 곳이다. 이천의 AI 발생농장이 전남지역 업체와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28일 낮 12시 이후에도 전날 AI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을 유지해 가금류의 이동을 당분간 제한할 방침이다.

AI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6만여 수, 10㎞ 이내에는 115만여 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천시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조병돈 이천시장 등과 함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다른 가금류 농가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AI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마장면의 한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농림축산식품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 이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수 전량이 살처분 매몰됐다. 김태철·신병근기자

17.1 X 22.2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2면 사회

'피부에 좋은 고구마'… 과장광고 아니다

영농법인, 영업정지 취소 신청
道행심위 '일반적 효능'… 구제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카피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영농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A법인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광고했고, 여주시는 같은 해 12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사회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만구기자

11.3 X 8.5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면 사회

성남 등 9개 시·군 누리예산 바닥… 어린이집 지원 끊겼다

3월분 운영비 등 지급 못해
"대책없어 막막"…보육대란 예고
수원·평택·여주는 시비로 충당

경기도내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각 어린이집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달 준예산으로 지급한 두 달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25일까지 이체해야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급하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넘기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원아 1명당 모두 7만 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 원, 처우개선비 2억 4천500만 원 등 7억4천9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1천400만 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천 6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천400만 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해결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어린이집 순으로 넘겨진다.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 원)와 운영비·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한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 이체한다.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중 보육료는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이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시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김란구기자

32.2 X 10.1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면 사회

도의료원 수원병원 리모델링 공사 '잡음'

주차장 업체, 임대료 감면 요구
병원 "인건비 문제 방안 검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최근 본관, 장례식장 등에 대한 증축(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와 마찰을 빚는 등 관련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30여억 원을 투입해 장례식장, 병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사무동 및 본관 건물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병원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공사차량의 주차장 요금 미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는 수원병원과 지난해 7월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3년 동안 병원 주차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매월 92만 원의 임대료를 수원병원에 납부하고 있다.

A업체는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공사차량과 건축자재의 적재 등에 따라 주차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 병원측에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줄 것과 공사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 등을 전달했다.

수원병원과 A업체는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금액에 대한 조정협의를 했으나 결렬됐고, 수원병원은 업체에 2가지 방안을 제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병원이 제안한 2가지 방안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10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잠정 중단하고 11월1일부터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계약을 하겠다는 것과 영업손실을 주장하는 A업체의 입장을 반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수원병원의 방안에 대해 A업체는 위탁업체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리모델링 공사로 장례식장이 문을 닫으면 매출의 90%가 줄어든다. 직원 2명의 인건비도 주지 못할 판"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인 병원측의 2개 제안 모두 생업을 접으라는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했다.

수원병원 관계자는 "공사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장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기간 동안 A업체 직원 2명의 인건비를 병원이 떠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빠른 시일 내 중재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17.1 X 10.9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B면 사회

북부소방본부, 119 간부 비판 인터넷 게시판 익명 글 진상조사

파주지역의 한 119안전센터 간부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경기북부소방재난안전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현재 감사부서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 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한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파주지역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A팀장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방 장비가 있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본다'는 등의 각종 행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일단 감사팀을 해당 119안전센터로 파견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익명으로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글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로 지목된 A팀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A팀장은 "업무의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엄하게 하지만 욕설과 성희롱 등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글이 익명으로 올라와 우선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우현기자

5.6 X 18.5 cm

중부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23B면 사회

경기북부청, 치안행정 본격 스타트

경기북부 329만 인구의 치안을 책임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홍문종·문희상·정성호·김태원·김영우 의원, 경찰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 경찰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면서 "주요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청장을 맡은 서범수 청장은 이날 개청식 이후 본격적인 안보치안 활동에 돌입했다.

서 청장은 개청식 당일 다중이용시설인 의정부 회룡역을 방문한데 이어 26일에는 국가중요시설인 의정부 신변전소를 방문해 각 시설의 테러안전대책 방호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에 따른 서범수 청장의 첫 행보는 대북접전지역을 담당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안보치안역량 강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시설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치안과 안보는 하나'임을 강조한 서 청장은 "벨기에 브뤼셀 폭탄 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자들에게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주현기자

17.2 X 7.6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道 산하 공공기관 13곳으로 축소

道 문화의 전당 등 6곳 폐지
중기센터 등 3곳 유사기능 이유
경기경제산업진흥원 신설 통합

경기관광공사, 설립 형태 변경
내달 8일 공청회… 의견 수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이 신설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경제·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흡수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실효성 상향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폐지되고, 10곳은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분야를 전담할 경기경제산업진흥원, 물류부지 조성과 임대 등을 맡을 경기공사 등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25개 공공기관이 13곳으로 축소되게 된다.

▒ 공공성 희석·기능중복 6개 기관 폐지

폐지 대상 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다. 경기과기원은 산학연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 도농교류, 친환경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올랐고, 수원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도립예술단은 신설법인 설립, 문화향유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 유사기능 10개기관 통폐합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개 기관은 통폐합 리스트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곳은 창업·판촉·통상지원 등 유사기능을 이유로 가칭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된다.

신설될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은 경제산업분야 총괄 기획관리 및 서비스를 맡게 된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신설되는 경기공사로 통합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물류부지 조성·임대가 경기도시공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지원 기능을 총괄토록했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 기능 재조정 및 자체 경영개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은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넘겨받아 시너지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경기관광진흥재단으로 설립형태를 변경하게 된다.

이외에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통합)경기도체육회는 기관별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향후 일정은

도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여야연정 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8일쯤 공청회를 열어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순까지 통폐합 등의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한 뒤 결과를 연정실행위에 보고하고, 같은달 20일을 전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인 통폐합에 착수하게 된다.도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모두 완료하는 데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과잉인력 630여명은 모두 고용승계키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순직소방관 가족과 인사나누는 남 지사 지난 26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관 가족, 순직 소방관 가족을 위한 '브라보 마이라이프 (베스트 파이어맨) 공연'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소방관 및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17.8 X 12.4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도내 시장·군수 재산↑… 이현호 도의원 122억 최고

南지사 34억여원… 8065만원↑
도의원 70% 1년새 평균 1억 증가

경기도내 시장·군수 10명 중 6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각각 8천65만원, 1천5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도내 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도의회 이현호(새누리당·이천1) 의원으로 122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장·군수 29명 중 19명은 재산이 늘고 10명은 줄었다.

오는 4월13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양주시와 구리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80억3천134만원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자산가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체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으로 전년보다 4억7천만원이 늘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년보다 8천65만원이 늘어난 34억5천738만원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역시 1천500만원이 증가한 5억3천769만원을 신고했다.

윤화섭 도의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 상가건물, 부채 등을 포함해 3억5706만원을 신고했다.

도 부지사 가운데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1억원 증가한 8억5천962만원,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1천만원이 증가한 6억2천928만원의 재산총액을 기록했으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전년대비 4천675만원 감소한 마이너스 1천618만원이었다.

경기도의원 123명 가운데 86명(69.9%)의 재산이 평균 1억원 증가한 가운데 이현호 의원이 122억4천749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시·군 기초의원(429명)과 공직유관단체기관장(11명) 중에는 256명(58.1%)의 재산이 평균 1억3천만원 늘었고, 182명(41.3%)은 평균 2억7천만원이 감소했다.

/안경환기자 jing@

17.8 X 17.6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道, 제안창조오디션 3회로 확대

경기도는 대국민 정책공모전인 제안창조오디션을 올해 3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첫번째 오디션 주제는 '경기도 북부 1박2일 관광상품 개발'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개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나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5월말 개최되는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에 진출하게 된다.

/이슬하기자 rachel@

5.7 X 7.3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07면 지역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서 30일 개막… 규모 2배 '껑충'

경기중소·해외 기업관도 마련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제품 전시회인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신기술 조달 활성화, 공공조달이 경제와 고용을 살립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는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산한 기술 우수제품과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신기술 제품, 녹색제품, 안전제품 등이 전시된다.

또 27개국 114명의 해외 바이어와 116명의 국내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조달 종합 전시회를 목표로 경기도 중소기업관과 해외기업관도 마련된다.

전시품 전시 외에도 구매실무교육,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해외조달 시장진출 설명회 등 23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지를 코엑스에서 고양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는 1만㎡ 전시면적에 17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올해는 2만1천㎡ 전시면적에 251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올해 행사는 조달청과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가 주관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엑스포' 홈페이지 (www.koppex.com)와 킨텍스 전시 사무국(☎031-995-828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16.6 X 10.7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스포츠

도체육회, 요트학교 운영…해양레저 발전 주도

김포 아라마리나 장비 점검
9개월간 수준별 교육 진행

경기도체육회가 2016 경기도요트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체육회와 경기도요트협회는 지난 25일 2016년도 요트학교 개강에 앞서 교육장인 김포 아라마리나를 방문, 교육장비 및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요트학교는 앞으로 9개월간 이론과 실전경험을 토대로 요트 전문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요트학교는 다년간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요트교육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입문부터 고급까지 과정을 다양화해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요트면허 취득을 돕는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요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동호인들이 요트학교를 통해 전문교육을 수강하면서 요트인구의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민들이 다양한 해양 문화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은 물론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수기자 jms@

11.3 X 8.8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스포츠

도장애인체육회, 양평서 직원역량강화교육 가져

생활밀착형 체육 방향 모색
임직원 청렴선포식·서약식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양평군 일원에서 2016년 제1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및 김기홍 이사 등 25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청렴선포식 및 서약식을 시작으로 청렴교육(장호철 사무처장),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김기홍·오광진 이사)가 진행됐다.

장호철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거듭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산유적지 다산 정약용 생가(남양주 소재)를 방문, 역사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공직자로써의 청렴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민수기자 jms@

11.3 X 8.1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스포츠

원로체육인 "전국체전 15연패 달성 위해 힘 모으자"

도체육인회, 대의원총회 열어
올 사업계획안 원안대로 승인

경기도 원로체육인 모임인 경기도체육인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기철 도체육인회 회장을 비롯해 55명의 원로체육인들이 참석했으며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기철 회장은 "경기도내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회에서 각 종목별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올해 충남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가 종합우승 15연패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체육단체 통합에 따라 종목별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체육원로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

11.3 X 7.6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스포츠

이유성, 도학생체전 복싱 중등부 60kg급 정상

이유성(수원 수일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복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유성은 지난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대표 2차 선발전과 제4회 김포시장배 경기도복싱대회,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 60kg급 결승에서 이성빈(평택 장당중)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또 중등부 38kg급 아진(의정부서중)과 42kg급 김민서(용인 포곡중), 46kg급 강은찬(성남 금광중), 48kg급 왕영건(평택중), 50kg급 전승현(의정부 송양중), 52kg급 조준영, 54kg급 김영훈(이상 광주중), 57kg급 박승민, 63kg급 김성혁(이상 시흥군서중), 66kg급 모건우(금광중), 70kg급 서강윤(용인 영문중), 75kg급 김철현(남양주 천마중)도 나란히 정상에 동행했다.

이밖에 고등부에서는 46kg급 김찰리(양주 덕정고)와 49kg급 류대현(광주중앙고), 52kg급 정요한(성남 태원고), 56kg급 강민수(광주중앙고), 60kg급 허재국(덕정고), 64kg급 하성규, 69kg급 박재만, 75kg급 황산익, 81kg급 장현동, 91kg급 한진우(이상 경기체고)도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민수기자 jms@

17.8 X 5.8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사회

이천서 1년여 만에 또 AI 발생… 확산 저지 총력전

방역당국 초비상 사태

종오리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오리 1만1천여 마리 살처분
정확한 발병 원인 오늘 나올 듯

'닭으로 옮길 경우 전멸' 초긴장
도내 오리류 이동중지명령
내달 2일까지 타 시·도 반출 금지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25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원인이 사료나 동물약품에 의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 AI는 전파속도가 워낙 빨라 닭으로 옮길 경우 전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방역당국이 신속한 살처분에 이어 방역 등 초비상 사태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27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천시 AI 방역대책상황실 방문 현장에서 종오리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례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지난 3월 17일 전후 감염에 이어 지난 21일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잔존인지 (철새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28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리 사육농가가 적은 이천에서 AI가 발병한 것이 의아하다"며 "(방역당국이) 발생원인 및 역학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신속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3월 초에서 17일 사이로 (감염시점이) 추정되는 만큼 이 시기에 확인된 차량 외 별도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오리에서 닭으로 전이될 수 있는 사료나 동물약품 등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 속에 초비상이 걸렸다.

예찰지역에서는 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식용 반출이 가능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가공상태로만 반출이 허용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또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며, 방제차 6대를 동원해 관내 모든 농가를 예찰,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



이천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26일 오후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000여마리를 살처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AI가 발생해 당혹스럽지만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천시 마장면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는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26일 사육하는 오리 1만 1천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됐고, 도내 6천427개소(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천298)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천=김용섭·양규원기자 1282kim@

29.9 X 16.2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사회

朴 대통령 "경기북부경찰청, 北 도발·테러 철저한 대비 갖춰야"

25일 개청식… 500여명 참석
초대 청장에 서범수 치안감
경기남부경찰청도 현판식 가져

경기북부 329만 인구의 치안을 책임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남경필 도지사, 홍문종·문희상·정성호·김태원·김영우 의원, 경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북 확성기 포격, 무인기 침범 등 계속되는 도발로 주민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기북부경찰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민·관·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개발과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관광산업과 친환경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양주·고양·일산·남양주·구리·동두천·파주·포천·가평·연천 등 11개 경찰서를 관할한다.

올 하반기 준공하는 일산서부경찰서와 내년 말 개서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를 포함하면 2017년 이후 관할 경찰서는 13곳으로 늘어나고, 1청장 1차장 11과 36계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청장은 행정고시 출신(경정 특채)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서범수 치안감이다.

서 청장은 교통사망사고 예방,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4대 사회악 척결, 112신고 총력대응, 경찰 청렴도 향상 등을 5대 주요과제로 삼아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지막 청장이자 경기남부청 초대 청장이 된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경기청 시절 31개 시·군 41개 경찰서를 담당할 때는 광범위한 면적 때문에 치안 환경이 불안했다"면서 "북부청 개청으로 21개 시·군 30개서 경찰서를 담당하게 돼 좀더 짜임새 있는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이름을 반겼다.

/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

23.9 X 13.4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8면 사회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 수원지검, 외부위원 9명 위촉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및 제1회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 및 회의는 앞서 검찰 내부 및 유관기관의 당연직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제한된 안건만을 심의해 온 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심의 기구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 조청식 용인시 부시장,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 이준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이세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9명이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 외부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또 제1회 정책위원회는 △2016년 수원지검 정책추진 방향, △2016년 수원지검 역점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마을변호사 제도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박국원기자 pkw09@

5.8 X 13.5 cm

경기신문
2016년 03월 28일 (월)
19면 사회

道 9개 시·군, 어린이집 운영비 '한 푼도 못줬다'

3월분 미지급 사태 벌어져
19곳 '돌려막기'로 고비 넘겨

'보육대란' 현실화 수면위
"정치권 빨리 해결해야"

경기도내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인 25일을 넘기면서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지난 25일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원 등 7억4천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못 줬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천군도 경기도가 지원한 두달치 준 예산 중 쓰고 남은 1천400만원을 24개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로 넘겼지만, 운영비 2천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 해결책이 없어 막막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나머지 22개 시·군 중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쓰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또 평택·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고, 수원시는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시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17.8 X 11.1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A면 종합

도 산하기관 절반 구조조정 수순밟나

도, 통폐합 용역추진 결과 발표… 기존 25→13곳 기능 재배치 필요
영어마을·농림재단 등 폐지 대상… 킨텍스 등 4곳 기능고도화 분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3곳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여야연정(聯政)의 주요 정책과제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6곳을 폐지하고 10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기사 3면>

엘리오앤컴퍼니가 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 지원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 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 유통과 친환경 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됐다는 이유로, 수원시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은 통합 대상이 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창업·판촉·통상 지원 등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가칭)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물류부지 조성·임대가 경기도시공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됐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 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 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넘겨받는 식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은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으로 설립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복 기능이 없지만 향후 경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4개 기관으로는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가 분류됐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여야연정 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최종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인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한편, 이날 연정실행위는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경기도 일자리재단(가칭)의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3.3 X 30.6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A면 종합



이천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26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서 AI… 도내 오리류 이동금지

수십마리 폐사 '고병원성' 확진…도, 10㎞ 이내 예찰 지역 지정
사료공장 등 6427곳에 소독·방역 조치… 모든 농가 예찰 강화

이천의 한 오리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확산 저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마장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 오리류, 관련 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28일 낮 12시까지 6천427곳(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천298)에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발생농가의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폐사체 검사는 물론 전국 가금류 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된다.

특히 26일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며 27일부터는 관내 모든 농가를 예찰,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26일 오후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한편, 지난 23일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와 병아리 수십 마리가 폐사하자 도축산위생연구소가 조사에 나서 AI 바이러스를 검출,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17.5 X 22.4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면 종합

이천 오리농가 AI 확진… 도내 가금류 이동제한

시, 마장면 방역초소 2곳 설치
농장 등 6427곳 방역작업 중

이천의 한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확산 저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마장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27일부터 28일 낮 12시까지 6천427곳(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천298)에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발생농가의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폐사체 검사는 물론 전국 가금류 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특히 26일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중이며 27일부터는 관내 모든 농가를 예찰,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천시는 26일 오후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한편 지난 23일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와 병아리 수십 마리가 폐사,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조사에 나서 AI 바이러스를 검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25.1 X 7.0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A면 종합

인쇄업 고사 위기인데… 도, 자체 발간실 운영 필요한가

인쇄물량·시설 전국 최대 규모… 중기중앙회 부당성 지적
예산 68% 인건비 지출 '비효율'… 업계는 일자리 절반 줄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간실'이 도내 인쇄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부당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등 6곳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광역 자치단체 11곳이 발간실을 두고 있다.

이들 11곳의 발간실은 연간 총 243억1천만 원어치의 인쇄물을 발행한다.

이 중 자체 발간 금액은 경기도가 12억2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인쇄발간물의 양도 78.5%로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발간실 공무원 직원수도 10.3명으로 전국 지자체 자체 발간실 평균인원 4.6명보다 많았다.

인쇄기는 전국 총 73대로 1개 지자체당 평균 6.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인쇄중소기업이 보유한 평균 1.7대보다 약 4배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년간 인쇄 사업체 3천884개 감소, 일자리 절반(49.4%)이 줄어드는 등 인쇄기업의 70% 이상이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자체 발간실 예산 중 68%는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지출돼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내 인쇄업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발간실을 축소 또는 폐지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과 인력으로 자체 발간실을 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 약 2~11배에 해당하는 인쇄물량을 자체 발간하는 행위는 안 그래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도내 인쇄업체인들의 사기를 꺾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며 "조만간 경기도 발간실 축소를 정부에 건의하고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25.2 X 9.0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A면 종합

도민 '정책 소통의 장' 확대

제안창조 오디션 3회로 ↑
우수 제안자에겐 상금

경기도는 '대국민 정책공모전인 제안창조 오디션'을 올해 3차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안 창조 오디션은 일반 국민이 참여해 제안 공모에 오디션 형식을 도입한 것으로, 316건의 제안을 접수한 바 있다. 도는 이 중 7개 제안을 채택, 지난해 9월 17일 오디션을 개최했었다.

당시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제안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시각장애인 배려석 설치로 이어졌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디션 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와 달리 주제를 제시하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식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오디션 주제는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상품 개발 ▶단독주택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 등 2가지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또는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채택제안과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경기도정에 반영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9.9 X 14.5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A면 종합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식이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경기북부 더 촘촘해진 치안망 기대

경기북부경찰청 본격 업무
朴대통령 "테러 대비 철저"

경기도 북부지역 329만 명의 치안을 담당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25일 오후 2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본보 3월 26일자 인터넷 게재>

이날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홍문종·문희상·정성호·김태원·김영우 국회의원, 경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 경찰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주요 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양주·고양·일산·남양주·구리·동두천·파주·포천·가평·연천 등 11개 경찰서를 관할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준공하는 일산서부경찰서와 내년 말 개서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를 포함하면 2017년 이후 13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초대 청장은 행정고시 출신(경정 특별채용)으로 기존 경기경찰 제2청의 수장인 서범수 치안감이 그대로 맡게 됐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5.0 X 16.9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A면 종합

따복센터, 도민교육프로 마련… 내달 11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 '따복센터')는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4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설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 성장을 위한 '터 무늬 학교'를 비롯해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모·떠·꿈 워크숍', 마을 만들기 기초교육인 '찾아가는 마을학교'와 '마을강사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이다. 따복센터 교육 강좌 접수는 4월 11일까지이며, 강좌에 따라 선착순 마감 또는 서류심사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15.0 X 3.6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A면 종합

도내 시장·군수 60% 재산 늘어

이교범 하남시장 2년째 1위
용인시장 증가액 4억 '최고'

1년 새 경기도내 시장·군수 10명 중 6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목록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 29명 가운데 19명(65.5%)은 늘고, 10명(34.4%)은 감소했다. 양주시와 구리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물러나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군수 가운데 이교범 하남시장이 재산총액 80억3천134만 원을 신고, 2년 연속 최고의 자산가로 꼽혔다. 이 시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 순위 두 번째다.

이 시장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연루돼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어 황은성 안성시장은 33억9천296만 원으로 전년도 3등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올라갔고, 김규선 연천군수가 25억2천308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체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으로 전년보다 4억7천만 원이 늘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8천65만 원이 늘어난 34억5천738만 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천500만 원 증가한 5억3천769만 원을 신고했다.

도의원 123명 중에는 70%인 86명이 1년 동안 평균 1억여 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37명(30.0%)은 전년보다 평균 1억2천만 원이 줄었다.

이현호(새누리·이천1) 의원이 총 122억4천749만 원을 신고해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 42억7천908만 원, 조재욱(새누리·남양주1) 의원 40억1천26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김승남(새누리·양평1) 의원은 -5천423만 원, 김치백(더민주·용인7) 의원 -4천975만 원, 남경순(새누리·수원1) 의원이 -3천901만 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시군 기초의원(429명)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11명) 중에는 256명(58.1%)의 재산이 평균 1억3천만 원 증가했고, 182명(41.3%)은 평균 2억7천만 원이 감소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9.9 X 15.7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A면 종합

인력·기능 재배치 기능 효율화… 일부 기관 추진사업 중단될라 우려감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 발표… 지각변동 현실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기관 25곳을 1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연정합의문에 따라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율적 인력 배치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의 총괄적 기획관리 미흡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맡은 엘리오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GSBC)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판매촉진 등 경제진흥기능은 분야별 전문성과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배타성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엘리오앤컴퍼니는 GSBC가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392억7천만 원에 달하며 적자의 74%를 도에서 보조 중(5년간 보조금 1.8배 증가)이며, 최근 5년간 시설운영사업 비중이 36.3%→48.9%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GSBC의 7개 해외사무소는 규모가 작고, 코트라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지원 기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복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GSBC·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가칭)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은 경기도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브레인으로서 총괄적인 기획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교육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게 된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 기능이 모두 경기연구원으로 흡수된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이 맡아왔던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된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자이대학이나 경기연구원으로, 복지시설 평가컨설팅·교육 등은 (사)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 등이 검토된다.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연구원의 운영체제 개선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중기지원센터 누적적자 392억 달해
테크노파크 등 묶어 경제정책 총괄
경기연, 재정·보건의료 집중 필요
농림재단 등 일부 폐지 대상 반발
관련 수행기관 '0'… 납득 시켜달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도시경쟁력 순위가 낮고 연구비중이 적은 고용, 재정, 문화체육, 보건의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폐지 대상에 오른 기관들 날벼락

용역결과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 등 6개 기관의 폐지를 비롯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10개 기관이 각 기능 별로 통폐합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원의 경우 최근 연구개발(R&D) 사업비와 연구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폐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용역 보고서에는 과기원의 각 기능들을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과기원 관계자는 "과기원이 폐지되면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경기도가 과학 기술 진흥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며 "또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투자 활성화 대책과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폐지가 제시된 경기농림재단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농정분야 핵심 정책인 '농식품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기능 전환이 예상됐던 터라 그 충격은 더하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여태껏 예상되는 폐지 대상 기관에서 재단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않았는데 갑작스런 폐지 주장에 직원들도 황당해하고 있다"라며 "초안을 봤는데도 재단이 폐지돼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힘듭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이 주장된 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반발도 거세다.

한옥자 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은 "본래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퍼센트로 따져 규모가 월씬 큰 경기연구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며 "경영 합리화는 기관의 갯수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기관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34.7 X 17.7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3면 지역

도내 9개 시·군 누리예산 소진… 보육대란 빨간불 켜졌다

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지급 사한 넘겨
지난달 보육료 돌려쓰기도… 연합회 "계속 지연땐 실력 행사"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대다수 소진된 가운데 결국 도내 9개 시·군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을 넘기면서 보육대란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와 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지난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시·군은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더해 원아 1명당 7만 원을 매달 25일 어린이집으로 계좌이체해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 원)와 운영비·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이체한다.

시·군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인 도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도로 넘기면 이를 다시 도로부터 넘겨받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 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 원 등 7억4천900만 원을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했다. 연천군도 관내 24개 어린이집에 1천400만 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나머지 운영비 2천6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용인·부천 등 나머지 19개 시·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의 경우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시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9.4 X 8.5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3면 지역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
파주 임진강서 씽씽 달렸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에서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로 DMZ 일대를 달리며 안보 체험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이날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거쳐 64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코스를 누비며 자연을 만끽했다.

이 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농산물교환권 지급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는 올해 DMZ 자전거 투어를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다음 달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열리는 행사는 오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 지불하면 된다.

한편, 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임진물새롬랜드 야영장에 'DMZ 자전거 투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평화누리길 11코스인 '임진적벽길'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9.5 X 13.0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3면 지역

여주시 닥터헬기 시민 이용 최선

여주시는 지난 7일 경기도와 강원도 간 응급의료 헬기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이용의 합의에 서명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MOU를 체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닥터헬기에 동승해 현장에서 전문처치를 제공하기에 환자 처치와 이송에 큰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 닥터헬기의 이착륙 장소 5곳을 선정한 상태로 해당 기관(대한항공)에서의 적합 여부 등 판정을 받기 위해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5.5 X 9.3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4면 인물

최고의 실력 발휘 '영아티스트' 덕



박진형 군,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1위 입상
도문화의전당 신예 음악가 양성 프로그램 '성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배출한 제1기 영아티스트 박진형(20)군이 지난 24일 치러진 '제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본선에서 1위에 입상했다.

우리나라 3대 콩쿠르 중 하나로 알려진 중앙음악콩쿠르는 조수미, 최현수, 김대진 등을 배출한 국내 대표적인 음악경연무대이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도문화의전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음악가 양성사업으로, 유망한 신예들을 뽑아 독주회, 오케스트라 협연, 찾아가는 공연, 마스터클래스 등 다수의 무대 경험뿐 아니라 아티스트 홍보, 멘토링 등 본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음악콩쿠르 1위 소식을 전한 박 군은 "국제 무대에서 여러 나라의 연주자들과 무대에 서면서 연주 기회가 많은 외국 학생들에 비해 무대 경험이 부족해 무대 위 돌발상황으로 당황할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연주 무대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협연 경험이 부족한 탓에 파이널 무대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으나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콩쿠르 무대에서 더이상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26.8 X 13.9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스포츠

경기도학생체전 복싱 결승전 수일중 이유성 60kg급 금메달

이유성(수원 수일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복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유성은 지난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대표 2차 선발전과 제4회 김포시장배 경기도복싱대회,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 60kg급 결승에서 이성빈(평택 장당중)을 꺾고 우승했다.

중등부 38kg급 아진(의정부서중)과 42kg급 김민서(용인 포곡중), 46kg급 강은찬(성남 금광중), 48kg급 왕영건(평택중), 50kg급 전승현(의정부 송양중), 52kg급 조준영, 54kg급 김영훈(이상 광주중), 57kg급 박승민, 63kg급 김성혁(이상 시흥 군서중), 66kg급 모건우(금광중), 70kg급 서강윤(용인 영문중), 75kg급 김철현(남양주 천마중)도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고등부에서는 46kg급 김찰리(양주 덕정고)와 49kg급 류대현(광주중앙고), 52kg급 정요한(성남 태원고), 56kg급 강민수(광주중앙고), 60kg급 허재국(덕정고), 64kg급 하성규, 69kg급 박재만, 75kg급 황산익, 81kg급 장현동, 91kg급 한진우(이상 경기체고)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7.5 X 11.9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스포츠

도지사배 승마 경주 3만여 명 환호

경기도는 27일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10회 경기도지사배 승마 경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은 국산 경주마들의 2천m 경주를 보며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또 행사장에는 도 축산물을 직접 맛보는 부대행사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5.3 X 7.0 cm

기호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7면 문화

2017 경기도자비엔날레, 미국도자교육평의회 후원 받는다

미국도자교육평의회(NCECA)가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공식 후원을 약속했다. 27일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제50회 NCECA 정기총회에 참가해 콘퍼런스 참가자 및 각국의 도자전문가에게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월 22일~5월 28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NCECA는 미국 전 지역 및 유럽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활발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토론과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보유한 6천 명 이상의 도예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도자 관련 행사다.

재단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미국 도자대학과 전 세계 도예인, 큐레이터 및 유관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힘썼다. 재단은 참가자 4천여 명과의 일대일 개인 홍보로 비엔날레 참여를 유도해 기존 보유 네트워크와의 심도 있는 미팅을 통한 차기 비엔날레 개선점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도자 잡지인 「세라믹 먼슬리(Ceramic Monthly)」의 에디터 제시카 냅(Jessica Knapp), 포레스트 가드(Forrest Gard), 독일 잡지 「뉴케라믹(New Keramic)」을 비롯한 관계자와 비엔날레의 홍보 방안을 협의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23.5 X 4.1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1(경기판)면 종합

道 다시 '보육대란'

9개 시·군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미집행

경기도가 다시 보육대란 위기에 빠졌다.

도내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인 25일을 결국 넘기고 말았다.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1·2월분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선생님처우개선비로 구분된다.

보육료는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돼 3월분의 경우 4월말까지 여유가 있다. 반면 처우개선·운영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이체해, 3월분을 지난 25일 어린이집 통장에 넣어줘야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이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한달치는 4억5000만원이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500만원 등 7억4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못 줬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1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400만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평택·여주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의 경우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이처럼 보육대란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와 도는 2017~2018년도 법정전입금을 미리 당겨 어린이집 3~12월분 누리과정 지원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23.4 X 8.3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道 고위공직자 재산 늘었다

남 지사·이 교육감 증가…이현호 도의원 최고 자산가

〈8065만원↑〉 〈1500만원↑〉 〈122억4000만원〉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전년도 평균보다 299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산이 증가했고, 도내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경기도의회 이현호(새누리·이천1) 의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목록에 따르면, 경기도 시장·군수 29명 가운데 19명(65.5%)은 늘고 10명(34.4%)은 줄었다.

남 지사의 재산은 34억 5738만원으로 작년보다 8065만원이 늘었다. 이 도교육감도 1500만원이 증가한 5억3769만원으로 신고됐다.

경기도 부지사 가운데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1억원 증가한 8억5962만원,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1000만원이 증가한 6억2928만원의 재산총액을 기록했다. 반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해보다 4675만원 감소한 -1618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의원 123명 중에는 86명(69.9%)의 재산이 평균 1억원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도의원은 37명(30.0%)으로 전년보다 평균 1억2000만원이 줄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현호 의원은 가장 많은 122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42억7908만원을 신고한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의정비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조재욱(새누리·남양주1) 의원이 40억126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김승남(새누리·양평1) 의원은 가장 적은 -5423만원, 김치백(더민주·용인7) 의원 -4975만원, 남경순(새누리·수원1) 의원 -3901만원, 지미연(새누리·용인8) 의원 -1727만원을 신고해 최하위였다.

시·군의원 429명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11명중 58.1%인 256명의 재산이 평균 1억3000만원 증가했고, 41.3%인 182명은 평균 2억7000만원이 감소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증감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17.5 X 12.9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칼바람 몰아친다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기능중복 25→13개로"… 내부 진통 예상

최종안 마련 임시회 제출 계획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정(聯政)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3차 회의를 열어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초안을 보고 받았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과기원은 산학연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고, 수원시와 지분을 공유하고 수원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은 통합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창업·판촉·통상지원 등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합해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물류부지조성·임대가 경기도시공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넘겨받는 식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재단으로 설립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복기능이 없지만 향후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4개 기관으로 킨텍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체육회 등이 분류됐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여야연정 실행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최종 통폐합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인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가 당초 도가 계획했던 범위보다 폭이 커 조율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방안

◇폐지 6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통합·흡수 10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경기경제산업진흥원(신설통합)

▲한국도자재단→문화재단(흡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흡수)

▲경기도시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공사(신설통합)

◇기능조정 4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자체경영개선 4개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28.0 X 32.3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브라보 마이라이프' 공연격려 메시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브라보 마이라이프' (베스트 파이어맨) 공연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격려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소방관 가족, 순직 소방관 가족을 위한 헌정공연으로 소방관의 역할 및 현실을 재조명하고 우수 소방관 시상으로 사기 진작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7.5 X 12.9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강좌 개설…참가자 모집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내달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27일 따복지원센터에 따르면, 개설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성장을 위한 '터 무늬학교'를 비롯해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모·떠·꿈 워크숍', 마을 만들기 기초교육인 '찾아가는 마을학교'와 '마을강사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이다.

먼저 '터 무늬 학교'는 '나와 너'부터 시작해 '우리'를 들여다보고 '일감'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으로 4월20일~5월25일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소통 및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학습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4월25일~5월16일 매주 월·화요일 진행된다.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자) 워크숍'은 현장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4월21~23일 2박3일 워크숍과 5월26일 후속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과 지역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기초교육이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강사 양성교육'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4월~6월 교육을 이수한 후 7월부터 강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따복센터 교육 강좌는 접수는 4월11일까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5.7 X 21.0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국민제안 오디션 연 3회로 확대 개최

최고 1000만원 시상금 지급 … 우수 아이디어 정책 반영

경기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오디션 형식으로 실시하는 제안공모를 올해 3회까지 늘리기로 하고 5월 말 첫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제를 제시하는 등 오디션 방식을 변경해 첫 번째 주제로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 과 '단독주택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개를 제시했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내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아이디어 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5월 말에 개최되는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에 진출하게 된다. 오디션은 전문심사위원 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 도는 채택 제안뿐 아니라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0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2675건의 도민 제안을 접수 받아 이중 3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4건 가운데 14건은 정책에 반영됐으며, 20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남모 씨가 제안한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제안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채택해 경기도문화의 전당에 시각장애인 배려석이 설치됐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안 창조오디션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5.9 X 15.2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1면 사설/칼럼

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예고됐던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시작됐다. 시흥 등 9개 시·군이 경기도가 내려준 1~2월분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소진해 3월분 어린이집 처우개선·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돼 3월분의 경우 4월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처우개선·운영비 3월분은 25일까지 통장에 넣어줘야 한다. 시흥시, 성남시 등 누리과정 예산을 미확보한 지자체들은 이달 분 처우개선·운영비 6억6000만원을 입금하지 못했다. 수원시는 보육대란을 우려해 예산 돌려쓰기를 감행했다. 도비가 내려오면 메울 생각으로 우선 3월분을 시비로 임시 변통했다고 한다. 용인시의 경우 2월분 보육료는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했고, 남은 2월분 보육료로 3월 분 처우개선·운영비를 해결한다고 한다. 용인시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임시변통한 도내 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도교육청, 지방정부 간에 갈등은 매년 반복됐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나마 4·13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육대란 위기에 빠지자 정부와 여당이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완전히 책임질지, 응급처방이 될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더이상 존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분명한 것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몰고 오면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7조8984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누리과정예산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결되는 문제다. 학부모들은 매달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길 바란다.

12.0 X 15.4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8(경기판)면 사회

수원지검 '법사랑 정책위' 확대 개편

수원지방검찰청이 지역 범죄예방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운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는 1996년부터 수원지검에 설치돼 범죄예방 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4일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는 제1회 정책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지검 1차장검사, 법사랑 연합회장, 형사2부장검사,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7명과 기존위원과 확대운용에 따라 경기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4개 시 부시장 등 외부위원 9명이 함께 했다.

이날 경기도 등 지자체, 교육청, 학계, 법조계 등 관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외부위원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와 수원지검 운영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심의 기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내용으로는 2016년 수원지검 정책추진 방향, 2016년 수원지검 역점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23.4 X 4.7 cm

인천일보

2016년 03월 28일 (월)
19(경기판)면 사회

이천 농가 확진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비상'

시 대책본부 가동 행정력 집중
일주간 조류·알 반출 금지
농가·차량 소독·방역 강화

이천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6427개소(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298)로, 28일 낮 12시까지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앞서 이천시는 26일 오후부터 발생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조사에 나서 AI 바이러스를 검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천시는 박태수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에 들어가 이날 시 전역으로 방역 작업을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장관은 27일 이천시를 방문해 그동안의 대처상황과 추후 확산, 방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천시는 이날 보고에서 "이번 발생한 농장의 오리 1만1604수 전량 살처분, 매몰(FRP통 20t 3개)했으며,보호지역(5㎞이내)과 예찰지역(10㎞이내)에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찰지역에서는 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식용으로 반출이 가능하지만보호지역에서는 가공상태로만 반출이 허용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또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장관은 "타지역 으로 확산 차단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발생농가 소속 계열사 육용오리농장 및 종오리농장등에 상시예찰과 자체교육을 강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조병돈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열린 방역대책회의에서 "AI가 인근 주변 농가나 타 시군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AI 바이러스는 고온으로 가열 시 모두 사멸되므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닭이나 오리를 평소처럼 안심하고 섭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

29.3 X 9.9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농식품부 "AI로 가금제품 홍콩 수출에 차질"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최근 다시 열린 국산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지난 11일 홍콩 가금제품 수출을 재개했으나 이번 경기도 내 AI 발생으로 발생지역인 경기도 산은 수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홍콩은 한국 내 AI 발생을 이유로 2014년 5월 한국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한국이 지난달 28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서 양국 검역 당국 협의로 지난 11일부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을 다시 홍콩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면 전국적으로 가금제품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지난 25일 이천에 있는 종오리 농장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rice@yna.co.kr

14.4 X 8.6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승마 대중화...국산 말 11마리 과천서 경주

승마 대중화…국산 말 11마리 과천서 경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27일 과천시 렛츠런 파크 서울에서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국산 경주마 11마리가 출전해 2천m를 달리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관람객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봄 정취를 만끽하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주마들의 승부를 지켜보며 환호했다.

주변에서는 경기지역 축산물을 맛볼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도는 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귀족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 승마 인구를 확대하고자 이 대회를 마련했다.

올해로 10회째인 이 대회는 2010년 일반 대상경주에 이어 2013년 상급 대상경주로 승격됐다.

kyoon@yna.co.kr
(끝)

14.4 X 9.0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자전거 타고 DMZ 달리며 봄 정취 만끽

자전거 타고 DMZ 달리며 봄 정취 만끽
(파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27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올해 첫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 행사를 열었다.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도는 2010년부터 매년 5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급 코스 17.2㎞와 초급 코스 14㎞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 200여 명은 임진각을 출발,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리며 봄 정취를 만끽했다.

자전거를 타는 도중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진행된다.

4월 참가 희망자는 4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장비를 빌리면 3천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DMZ 자전거 투어는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총 1만5천명이 참여했다.

kyoon@yna.co.kr
(끝)

14.4 X 10.9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AI 확산 막아라"...이천시 전역으로 방역 확대

"AI 확산 막아라"…이천시 전역으로 방역 확대
(이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27일 시 전역으로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

이천시는 전날 방제차 2대로 AI가 나온 마장면 농가 일대를 방역한 데 이어 이날 4대를 추가 동원해 총 6대로 이천시 전역의 가금류 농가를 방역하고 있다.

이천시는 농협 등에 방제차를 추가로 요청, 방역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천시에는 가금류 농가 85곳에서 526만 7천여 수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초소는 마장면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등 2곳을 유지,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짐에 따라 AI 발생 농가는 물론 관내 나머지 오리 사육 농가 3곳의 입구도 통제됐다.

이천시는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28일 낮 12시 이후에도 전날 AI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을 유지해 가금류의 이동을 당분간 제한할 방침이다.

AI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6만여 수, 10㎞ 이내에는 115만여 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천시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조병돈 이천시장 등과 함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아직 다른 가금류 농가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AI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마장면의 한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농림축산식품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 이 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수 전량이 살처분 매몰됐다.

zorba@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3월 26일 (토)
경제

인접지역 AI 발생...충북도 긴장 속 '차단 방역' 강화

인접지역 AI 발생…충북도 긴장 속 '차단 방역' 강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이천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 앙성과 음성 감곡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도내 가금류 농장 165곳과 도축장 8곳, 사료공장 4곳 등 177곳의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의 가금류나 부산물의 도내 반입도 철저히 차단한다. 특히 도계를 넘어 이동하는 사료 차량은 중점 관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도내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통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100마리 이상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도내 농가는 오리 161곳(149만8천303마리), 닭 345곳(1천106만5천519마리)이다.

지난달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주축이 돼 도내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항원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바 있다.

jeonch@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3월 26일 (토)
경제

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제주, AI 발생 수도권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살아있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도 반입할 수 없다.

도는 비수도권 지역 가금육과 계란을 반입하려면 반입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토록 했다.

도는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반입 금지 축산물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출입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koss@yna.co.kr
(끝)

14.4 X 8.6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6일 (토)
지역

이천 종오리 농장서 AI 발생...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명령'(종합)

이천 종오리 농장서 AI 발생…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명령'(종합)오리 1만1천여마리 살처분…정부차원서 확산 저지 총력
인접 지자체도 초긴장…"타 시도로 오리류 반출금지"

(이천=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천427개소(농장 115, 도축장 2, 사료공장 12, 차량 등 6천298)로, 강력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기간은 27일 오전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반출금지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생농가의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폐사체 검사는 물론 전국 가금류 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농림부는 또 AI 특별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 전국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 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앞서 이천시는 이날 오후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천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23일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조사에 나서 AI 바이러스를 검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천시는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찰지역에서는 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식용으로 반출이 가능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가공상태로만 반출이 허용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또 마장면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2곳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27일부터는 관내 모든 농가를 예찰,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 꾸린 비상상황실은 AI가 확산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천과 인접한 충북도도 이천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 앙성과 음성 감곡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AI가 발생해 당혹스럽지만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상농가와 축산 관계자에게 알리겠다"며 "이 기간 중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반도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사회

'고구마 항산화 성분 있다'...경기도 "허위광고 아냐"

'고구마 항산화 성분 있다'…경기도 "허위광고 아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
경기도 여주시의 A 영농법인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광고했다가 같은 해 12월 여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여주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A 법인의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판단했다.

관련 법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자 A 법인은 여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취소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A 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사회 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A 법인의 제품 홍보내용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 법을 오인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14.4 X 12.4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서 30일 개막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서 30일 개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제품 전시회인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신기술 조달 활성화, 공공조달이 경제와 고용을 살립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에는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산한 기술 우수제품과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신기술 제품, 녹색제품, 안전제품 등이 전시된다.

또 27개국 114명의 해외 바이어와 116명의 국내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조달 종합 전시회를 목표로 경기도 중소기업관과 해외기업관도 마련된다.

전시품 전시 외에도 구매실무교육,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해외조달 시장진출 설명회 등 23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지를 코엑스에서 고양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는 1만㎡ 전시면적에 17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올해는 2만1천㎡ 전시면적에 251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청에 등록된 4만9천여 개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조달청과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정부조달마스협회가 주관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엑스포' 홈페이지 (www.koppex.com)와 킨텍스 전시 사무국(☎ 031-995-828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h@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누리예산 바닥...경기 10개 시·군 어린이집 지원 끊겨



[연합뉴스TV제공]
3월 운영비·처우개선비 지급못해…보육대란 재연 조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인 25일을 넘기고 말았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남에 따라 상당 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광주·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10개 시·군이 이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원 등 7억4천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못 줬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1천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천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천400만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해결책이 없어 막막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어린이집 순으로 넘겨진다.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원)와 운영비·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 이체한다.

용인·부천 등 18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수원·평택·여주 등 3개 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경기도 산하기관 24→13개 통폐합"...경영합리화 용역

여야연정 정책과제…5월까지 최종안 마련 도의회 제출

조례 제·개정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 통폐합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여야연정(聯政)의 주요 정책 과제다.

25일 엘리오앤컴퍼니가 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지원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와 중복되고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농식품유통과 친환경급식 등 주요 기능이 도 농정해양국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은 공공성이 희석됐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고, 수원시와 지분을 공유하고 수원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은 통합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경우 창업·판촉·통상지원 등 기능이 유사해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합해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물류부지조성·임대가 경기도시공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다.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을 흡수해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에 분산된 정책연구 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넘겨받는 식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재단으로 설립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복기능이 없지만 향후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고도화 4개 기관으로 킨텍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체육회 등이 분류됐다.

도는 용역보고서를 여야연정 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최종 통폐합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실질적인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24개 산하기관 통폐합 방안>

◇ 폐지 6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 통합·흡수 10개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경기경제산업진흥원(신설통합)

▲ 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흡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흡수)

▲ 경기도시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공사(신설통합)

◇ 기능조정 4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 자체경영개선 4개

▲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chan@yna.co.kr

14.4 X 34.9 cm

연합뉴스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인사권 남용'...경기도, 구리시 간부 5명 중징계 요구

구리시 "연례적 승진 인사로 무리한 징계 요구…재심 청구할 것"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급 이상 구리시 간부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구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승진 등 대규모 인사를 한 구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22일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도는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인사라인에 있던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5급의 경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승진인사를 했다"며 "이는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징계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그해 승진 인사를 한꺼번에 해왔고 부단체장은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중징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영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성인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수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행자부도 '관련 규정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안으로, 한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14.4 X 12.8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AI 발생 경기도산 가금제품 홍콩 수출 무산



【세종=뉴시스】 이예슬 기자 = 경기 이천시의 오리농장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무산됐다.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지난 11일 홍콩 수출을 재개한 지 약 보름만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발생지역인 경기도산의 경우 가금제품 홍콩 수출이 어렵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으로도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14.4 X 15.9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수원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차질 없이 지원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는 보육현장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누리과정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4.5개월치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5월 말까지는 보육대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유지를 위한 '보육료 대납신청'을 했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는 시 편성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가 대납 신청한 보육료와 선 집행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 연간 소요되는 예산 410억여원을 경기도가 연말까지 반드시 전액 교부를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과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보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gh@newsis.com

14.4 X 9.4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해당 기관 불만 고조

【수원=뉴시스】 이준석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25개 산하기관을 13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등 통폐합 방향을 밝히면서 기관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3월25일 보도>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용역기관으로부터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용역보고서에는 25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 등 6개 기관의 폐지를 비롯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10개 기관이 기능별로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여러 기관이 통폐합 된다면 운영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각 기관의 고유기능들은 사라지게 된다"며 "기관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은 바이오센터,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클러스터혁신·판교테크노벨리·산학연지원 기능을 경기연구원, 나노기술원, (가칭)경제산업진흥원 등으로 이관하게 된다. 행정지원 인력의 경우, 이관 대상기관에 재배치하게 됐다.

그러나 경기과기원은 '폐지'라는 예상치 못한 용역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기원 관계자는 "과기원 내 바이오센터의 기능을 나노기술원으로 이관한다는데 나노기술원은 도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될 기관"이라며 "도 산하기관도 아닌 곳으로 기능을 이전한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은 드러냈다.

경기연구원으로 흡수·통합되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이번 용역결과가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본래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관은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통합된다면 이같이 작지만 중요한 연구들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만을 놓고 본다면 공공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공공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효율성을 잣대로 놓고 평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통폐합 대상 기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농림진흥재단 관계자는 "농림재단은 출범 이래 여러번의 산하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폐지 대상에 언급된 적도 없었다"며 "폐지 근거를 살펴봐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연정실행위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순께 통폐합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js@newsis.co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따복지원센터, 교육강좌 참가자 모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따복센터)는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4월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설 강좌는 ▲터 무늬학교 ▲퍼실리테이터 양성 ▲모·떠·꿈 워크숍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강사 양성교육 등 5개 과정이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터 무늬 학교는 '나와 너'부터 시작해 '우리'를 들여다보고 '일감'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다. 4월20일~5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마을 만들기 과정부터 소통·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학습촉진자를 양성하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다음 달 25일~5월16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열린다.

모이고 떠들고 꿈꾸자의 줄임말인 '모·떠·꿈 워크숍'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4월21일~23일까지 2박 3일 워크숍과 5월26일 워크숍으로 이뤄졌다.

또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과 지역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기초교육이다. 관심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강사 양성교육'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자로 4~6월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7월부터 찾아가는 마을학교 강사로 파견된다.

교육 강좌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따복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복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의 수준 높은 강의와 탄탄한 구성으로 준비됐다"며 며 "그동안 관심은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2.8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 이천 AI 확산 저지 초비상...가금류 수출 길 막혀



【이천=뉴시스】 이정선 기자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26일 오후 해당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오리 1만9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2016.03.26. ppljs@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이천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사육 농가도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또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AI가 발생, 가금류 수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부터 28일 자정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날 도내 전체 오리농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중지 대상은 오리류 축산 농장(115곳·60만마리)을 비롯해 도축장(2곳), 사료공장(12곳), 관련 차량과 작업장(6298곳) 및 종사자 등으로, 이들동안 일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소재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AI가 철새가 아닌 전남지역 농가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 이동제한 명령을 오리류로 제한했다.

이천시는 이날 조병돈 시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I 확산 차단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AI가 확산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소독 및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AI 발생 마장면의 오리농장에 현장통제소를 설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오리농장 18곳 121만4225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매일 예찰할 계획이다.

【이천=뉴시스】 이정선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오후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가로 들어가고 있다. 2016.03.26. ppljs@newsis.com
이 일대를 지나는 축산 관련 차량은 덕평IC 주변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 된다. 조병돈 시장은 대책회의에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천시는 마장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26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16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도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중이며, 농가를 직접 둘러보며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오리사육 농가에서도 자체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AI 발생으로 오리농장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2년여 만에 재개된 경기도 계란 수출도 중단됐다.

지난달 28일자로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도내 한 계란생산업체가 홍콩에 계란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AI 발생으로 가금류 전체 수출이 전면 보류됐다.

다시 수출하려면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회복를 회복해야 하는데, AI 발생으로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이 없어야 하며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도 없어야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는 오리류로 제한했지만, AI 청정국 지위 상실에 따라 모든 가금류 수출은 중단된다"며 "현재 AI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14.4 X 34.9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의약품 혼동 우려 없는 제품 홍보에 영업정지는 위법·부당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의약품으로 헷갈릴 우려가 없는 식품을 홍보하면서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행위는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A법인은 호박 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이 같은 광고를 알게 된 B시는 지난해 12월 A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 제13조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법인은 B시의 영업정지 명령을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도행정심판위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도행정심판위는 "일반적으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허위·과대광고라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B시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A법인은 제품 판매를 위해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2.1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수천만원 걸린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3번 열린다

4월11일까지 첫 번째 오디션 제안 접수

최우수 제안자에게 1000만 원 지급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대국민 정책공모전인 제안창조 오디션을 올해 3차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일반 국민이 참여해온 제안 공모에 오디션 형식을 도입, 316건의 제안을 접수한 바 있다. 도는 이 중 7개 제안을 채택, 지난해 9월17일 오디션을 개최했었다.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제안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 시각장애인 배려석 설치로 이어졌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오디션 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와 달리 주제를 제시하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식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오디션 주제는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 ▲단독주택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가지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또는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에 예정된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에 진출하게 된다.

오디션은 전문심사위원뿐 아니라 일반인 청중평가단과 온라인 투표 등의 심사를 받게 된다.

도는 채택제안뿐만 아니라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경기도정에 반영된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7.4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내달 1일 의정부서 나무 무료나눔 행사

【의정부=뉴시스】 이종구 기자 = 경기도가 제71회 식목일을 앞둔 오는 4월 1일 의정부시 신곡동 홈플러스 앞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내 나무 가꾸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1인당 2그루씩 총 2000그루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올해에도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매실, 앵두, 감나무 등 유실수종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 나무들은 키우기가 쉽고, 과실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나무에 매달 수 있는 이름표도 함께 배부해준다.

이세우 도 산림과장은 "나무심기 좋은 시기에 유실수를 심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leejg@newsis.com

14.4 X 7.9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농업기술원, 29일 우수농업 특허기술 설명회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도 농기원)은 오는 29일 농산물 가공기술 5건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우수농업 특허기술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설명회를 통해 자체개발한 ▲허브 쿠키·파이 제조기술 ▲쌀 발효액 이용 쌀 빵 제조기술 ▲버섯가공품 제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 시흥시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연성분 함유 기능성 소금·팥앙금 제조기술도 설명한다.

설명회는 연구개발자가 참가업체에 직접 기술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 제품 전시와 시음·시식 행사도 함께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도 농기원 지원기획과 마케팅팀(031-229-6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기술 이전 설명회를 통해 산업체에 이전한 기술이 활성화되어 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9.0 cm

NEWSIS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재난본부, 안전 위협 불법 200여건 적발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경기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00일 단속을 펼친 결과, 법령을 위반한 20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경기재난본부는 과태료 처분 이상이 위반행위 93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유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 관리·감독 태만 등 위험물법 위반 53건 ▲소방시설 공사 도급 위반, 소방감리자 미지정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 23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자체점검 부실 등 소방시설법 위반 15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 2건 등이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대상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7.1 cm

NEWSIS
2016년 03월 26일 (토)
종합

경기 이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당국 '비상'



AI발생 이천 오리농장 1만900수 살처분

경기도내 오리류·차량 36시간동안 전면 이동중지 명령

【세종=뉴시스】 우은식 기자 =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에서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경기도 이천 종오리(병아리를 생산하는 씨오리) 농장의 폐사체 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곧바로 가축방영심의회를 개최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초동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내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에 대한 전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27일 0시부터 28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경기도내 오리농장 115곳, 도축장 2곳, 사료공장 12곳과 차량 6298대가 36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대상지역에 대해 강력한 소독 및 방역조치,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율 소독이 실시된다.

아울러 경기도 소재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와 오리 알에 대해 27일부터 4월2일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고려해 반출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경기도 소재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

발생농가와 사료 및 새끼오리 등을 공급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99곳)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4월8일까지 일제히 폐사체 검사를 완료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28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실태 이행상황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 전국 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4개반, 28명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차단방역 추진상황 및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AI 발생 농장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1만900여수는 즉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 들어갔으며,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swoo@newsis.com

NEWSIS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경기도 공공기관 지각변동...인력·기능 전면 재배치

(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 설립으로 3개 기관 통폐합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30년 역사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라지는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지각 변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산하 기관 25곳이 13곳으로 줄어들고 개별 기관이 맡아오던 다양한 기능도 전편 개편된다.

이 같은 도의 공공기관 개편은 공공기관의 기능상실이나 중복 현상 발생, 매년 늘어나는 적자 규모, 공공 기능 달성 등으로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40%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15%나 증가하면서 더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면 630여 명의 행정운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견해다.

도 관계자는 "행정 인력을 실제 사업부서로 재배치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용 안정 측면에서 무분별한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도는 월드컵경기장,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은 지분을 가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벌여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 설립

1997년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이들 기관의 통합으로 경기중기센터가 담당하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옮겨진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맡게 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기능별로 나눠진다.

2010년 4월 출범한 경기과기원은 그동안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 ▲바이오센터 ▲클러스터혁신·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지원 등을 담당했었다.

이중 기초과학기술정책연구는 경기연구원으로 이관되고 바이오센터 운영은 나노기술원이나 차세대융합기기술원에서 맡게 된다.

또 클러스터혁신·판교테크노밸리와 산학연 지원은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옮겨진다.

경기과기원이 가진 기능 대부분이 경기중기센터나 테크노파크 등의 업무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통폐합으로 태어나는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은 경기도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브레인으로서 총괄적인 기획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도자재단의 산업진흥 기능도 맡는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경기문화재단이 한국도자재단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경기도 문화예술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도는 경기문화재단이 갖게 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 위탁해 '조직 슬림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통합 후 박물관 등 일부 전시시설과 도자재단의 이천세라피아 등 전시관 운영을 민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문화의전당은 수원시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문화의전당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수원시와 도 소유로 나뉘어 있다. 수원시는 1985년 문화의전당 건립을 예산 부족으로 포기하려다 도의 지원으로 건물을 세웠기 때문이다.

건물만 수원시에 넘기고 도립예술단 등 소속 지원은 '경기도립예술단'의 별도 법인으로 신설한다.

한편, 도와 수원시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넘겨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설립형태를 변경, 경기관광진흥재단으로 바뀐다. 또 DMZ 사업 운영 등은 파주시 등 해당 시·군으로 위탁하게 된다.

◇연구·교육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민간 위탁되고 경기영어마을은 폐지된다. 손학규 전 지사의 최대 치적인 경기영어마을이 설립 1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 기능이 모두 경기연구원으로 흡수된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이 맡아왔던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된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은 지역대학이나 경기연구원으로, 복지시설 평가컨설팅·교육 등은 (사)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 등이 검토된다.

한편, 도는 경기공사를 설립한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평택당진항만사업단 형태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또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사업별로 ▲녹화사업→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농식품 유통→농협 또는 민간 유통업체 위탁 ▲도농교류→농업기술원 ▲친환경급식→경기도교육청 ▲연인산도립공원 운영→道 공원녹지과 등의 형태로 기능이 전환된다.

dsk@newsis.com

14.4 X 38.7 cm

NEWSIS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교육부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비판 동영상 송출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25일 "경기교육청에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영상물 송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기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관내 학교들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담은 영상물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영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동영상 상영은)대다수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누리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부모들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현장에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을 비롯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달 9일 초·중·고 행정실장에 '정부의 누리과정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대란' 동영상을 상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이 제작한 이 영상은 '국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positive100@newsis.com

14.4 X 10.9 cm

NEWSIS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경기 이천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세종=뉴시스】 우은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기도 이천 소재 종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23일 사육규모 1만907수에 달하는 이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종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25일 종란이 폐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검사결과 H5N8형 바이러스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AI 인지 여부는 26일께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해당 농장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농장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검역본부의 중앙역학조사반을 즉시 투입해 해당 농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26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eswoo@newsis.com

14.4 X 18.0 cm

NEWSIS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25개→13개

연정실행위, 경영합리화 방안 초안 공개

6곳 폐지, 10곳 통폐합…오는 5월 최종안 마련

道, "최종 결과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25곳에서 13곳으로 줄어든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2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6곳을 폐지하고 10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폐지 대상 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경기연구원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이 합쳐진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 경기문화의전당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기능조정도 이뤄진다.

경기양주섬유센터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흡수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된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관광진흥재단으로 설립형태가 변경되고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수원병원 확장 이전을 추진한다.

그러나 킨텍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통합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4곳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연정실행위는 지난 2014년 8월 연정합의문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엘리오앤컴퍼니를 용역기관으로 선정, 합리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연정실행위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본사 북부지역 이전 대상기관 선정 ▲공공기관 규정·제도 개선 ▲공공기관 내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연정실행위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연정실행위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통폐합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의 기초를 담은 초안으로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최종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정실행위는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인 (가칭)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dsk@newsis.com

NEWSIS
2016년 03월 25일 (금)
종합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식 참석한 박 대통령



【의정부=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03.25.

park7691@newsis.com

14.4 X 20.4 cm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교육강좌 참가자 모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28일부터 4월11일까지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성장을 위한 '터 무늬학교'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자) 워크숍' △마을 만들기 기초교육인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강사 양성교육' 총 5개 과정이다.

터 무늬 학교는 '나와 너'부터 시작해 '우리'를 들여다보고 '일감'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고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소통 및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학습촉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모·떠·꿈 워크숍은 현장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과 지역을 찾아가 진행하는 기초교육이다.

문의 따복공동체지원단 (031)8008-3436.

14.4 X 8.6 cm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경기도, '2층버스 성능개선' 추진...환풍구 설치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2층버스/ⓒ News1

경기도가 2층 광역버스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버스 성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개최된 주간정책회의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임 후 새로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2층버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안 해본 정책, 처음 도입하는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책 현장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한다"며 "2층버스 기사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2층버스 성능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이달 15일 2층버스와 따복버스 기사를 굿모닝하우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도는 간담회 뒤 2주 동안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차량 세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유리창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고압 세척기를 구비토록 할 방침이다. 시군, 버스업체와 협의해 일반버스와 2층버스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세차기도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통유리로 제작돼 차내 환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5월 중순까지 2층 뒷자석 측면유리를 제작사와 협력해 창문 설치 유리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추가 도입되는 차량에는 천장 환풍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행 중인 2층버스(9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운전석 공간 확장과 차량 내외부 CCTV 추가 등은 후속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도민과 만나는 2층버스, 따복버스 기사 가운데 모범 기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2층버스 1대를 조기 도입하면서 버스업계 등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버스 성능 개선을 추진중이다.

같은해 11월 본격 2층버스 운행 전 버스내 2층 계단 손잡이와 안전봉을 추가 설치하고, 계단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안전과 편의사항을 개선했다.

승객의 안전 상태 등을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석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용 모니터도 크기도 확대했다. 성애 제거가 용이하도록 앞유리 환풍구를 2구에서 3구로 늘리고, 선바이저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 편의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2층버스 도입 후 수시로 버스회사 관계자, 버스기사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성능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며 "운전기사와 승객이 안전하고 만족할 때까지 애프터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4 X 30.4 cm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경기도, '환승할인제 용역' 추진...'손실율 추가 인하' 추진

현재 손실율 46% 재정운영에 부담 판단…경기연구원, 단기과제 연구도 병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율 추가 인하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환승할인제 발전방안 공동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손실 보전율 추가 인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환승할인제 발전방안 용역'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기관이 공동 시행한다.

도는 용역을 근거로 현재 46%인 환승손실보전율 추가인하 방안을 코레일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환승손실율 추가 인하(60%→46%)로 경기도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연간 1012억원에서 726억원으로 280억원 줄게됐지만 여전히 도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환승손실율을 요금조정(2015년 6월27일) 이후 46%(기존 6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신 코레일을 상대로 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코레일과 2심 패소 후 서울메트로와 1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해 코레일과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시 환승손실보전율 인하 협상력 저하가 예상된기 때문이다.

도는 코레일과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에서 패소(2015년 4월16일 2심 패소)한 것과 관련, 환승손실금 미지급금 잔액 392억원을 올해 초 전철기관에 지급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2월까지 미지급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연 5%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앞서 2012년과 2013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2011년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 환승손실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그런적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는 환승손실보전율 추가 인하를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단기과제 연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14.4 X 24.9 cm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종합

'인쇄대기업' 된 지자체...中企 "영역 침범·경영난 가중"

중기중앙회, 지자체 자체발간실 실태조사…"규모 대비 비효율적 운영"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자체발간실 vs 인쇄중소기업 규모 비교

구 분		광역지자체 발간실 평균	인쇄 중소기업 평균
2013년	예산액 / 출하액	350,549천원	304,440천원
2014년	평균 종사자 수	4.6명	3.9명
2014년	평균 인쇄 기계 대수	6.6대	1.7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news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인쇄물을 늘리면서 인쇄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인 동시에 인쇄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자체발간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체발간실이 있는 11곳은 연간 243억1000만원 규모의 인쇄물을 발간했다.

11곳이 자체발간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쇄물 규모는 연간 38억원이다. 전체인쇄 물량 27%를 자체발간하고 73%를 외부발주하고 있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자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쇄소다.

자체발간실은 인쇄중소기업 보다 비대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발간실 근로자수는 평균 4.6명으로 인쇄중소기업(3.9명)보다 많았다. 경기도는 직원수가 10.3명에 달했다. 보유 인쇄장비수도 평균 6.6대로 인쇄중소기업(1.7대)을 3배 웃돌았다.

특히 9개 자체발간실의 자체발간금액 중 인건비와 같은 간접인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체발간실 예상 중 종이나 카트리지, 인쇄장비 구입과 같이 인쇄를 위한 직접비용이 적다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매년 수십억을 쓰고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자체발간실 운영이 세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쇄중소기업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나선 이유는 경영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중소인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5.4%가 최근 3년간 매출이 줄었다. 62%는 '경영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68.6는 '지자체 발간실이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실제 인쇄업계는 10년간 사업체 수가 3800여개 감소하고 일자리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쇄물 외부 발주를 임의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짙었다. 17개 지자체의 외부발주를 보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비중이 27.9%에 불과했다. 나머지 72.1%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인쇄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절감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인쇄기업에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장기 불황과 업체 과당경쟁으로 인쇄중소기업은 고사위기"라며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제1기 경기영아티스트 박진형군 중앙콩쿠르 1위 올라

김준호군도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서 1위 입장…경기문화전당, "영아티스트사업 계속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 영아티스트 1기생인 박진형(20)군이 24일 치러진 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본선에서 1위에 올랐다./사진제공=경기문화의 전당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 영아티스트 1기생인 박진형(20)군이 24일 치러진 42회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본선에서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음악콩쿠르는 우리나라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로, 조수미, 최현수, 김대진 등 세계적 음악가를 배출한 국내 대표 음악경연무대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난해 부터 시작한 음악가 양성사업으로, 유망한 신예들을 뽑아 독주회, 오케스트라 협연, 찾아가는 공연,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영재 아트티스로 길러내는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마친 경기 영아티스트들이 최근 연달아 국내외 콩쿠르무대에서 낭보를 전하고 있다.

이번에 우승한 박진형군은 제17회 바르샤바 국제 쇼팽 피아노콩쿠르 본선과 제18회 산탄테르 국제 콩쿠르 피아노부문 결선에 진출한 바 있다. 김준호군은 제55회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입상에 이어 제4회 야마하 음악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중앙음악콩쿠르 1위 소식을 전"한 박진형군은 "협연경험이 부족한 탓에 파이널무대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콩쿠르 무대에서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너무 기쁘고, 축하할 일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훌륭한 아티스트의 탄생에 일조할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도 세계무대를 향한 아티스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영아티스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제2기 영아티스트를 31일까지 모집중이다.

2016 경기 영아티스트 선발은 만 14~25세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1차 동영상심사와 2차 무대오디션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응시방법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 03-230-3273) 참조

news1
2016년 03월 27일 (일)
지역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 대회' 3회로 확대...5월 첫 개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제안 창조 오디션의 성과가 좋아 올해 개최 횟수를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제를 제시하고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식으로 오디션 방식을 변경해 첫 주제로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개를 선정했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다.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나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5월 말 개최 예정인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에 제출된다. 오디션은 전문심사위원 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된다.

도는 채택제안 뿐 아니라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 최고 10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2675건의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3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건은 정책에 반영돼 추진중이다.

남 모 씨가 제안한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제안은 도 문화정책과의 정책으로 반영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시각장애인 배려석 설치로 이어졌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며 경기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4 X 13.6 cm

news1
2016년 03월 26일 (토)
지역

경기 AI 발생에 제주도 '긴장'...수도권 닭·오리 반입 금지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26일 오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3개월 이상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처음 발생했다. 2016.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살아있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도 반입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 가금육과 계란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예정일 전날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14.4 X 17.6 cm

news1
2016년 03월 26일 (토)
지역

AI 발생 농장 오리 1만1천여首 전량 매몰 처리

가금류 이동 제한, 차량 소독 등 긴급 방역도 실시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경기도 이천시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26일 오후 관계자들이 감염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3개월 이상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처음 발생했다. 2016.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농장에서 사육되던 오리 전량이 매몰 처리됐다.

방역당국은 26일 오후 5시께 이천시 마장면 S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1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내에 매몰했다.

이날 살처분 작업은 현장에 투입될 장비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1시께 하루 전인 25일 이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하고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방역팀이 해당 농장의 출입과 주변 지역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마장면 지역에 2곳의 방역대를 설치해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작업도 벌이고 있다.

반경 3㎞를 보호구역, 10㎞를 예찰구역으로 지정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이천시 마장·대월·백사·호법면과 이천시내 지역이다.

이동필 장관은 27일 오전 상황실이 설치된 이천시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3개월 이상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처음 발생했다.

앞서 농장주 A씨는 지난 23일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하자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했다.

농장주 A씨는 "사료를 새로 들여왔는데 오리가 2~3일 가량 먹더니 갑자기 안 먹고 폐사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오리의 시료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26일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오리 병아리를 판매하는 종오리 농장으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매주 시료를 채취해 AI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관리 대상 농장 가운데 하나다.

news1
2016년 03월 26일 (토)
종합

이천 종오리 농가 AI 고병원성 확인...살처분 준비(종합)

가축 이동 제한, 이동 차량 소독 등 긴급 방역도 실시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리 사육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News1이재명 기자

경기 이천시의 한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25일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가 사육중이던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하는 등 긴급 방역 대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 "이천시 마장면 S농가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검역결과 확인됐다"며 "오후 4시께 방역대책 심의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이 27일 오전 상황실이 설치된 이천시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3개월 이상 AI 발생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처음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천시 마장면 S농장에서 오리 병아리 수십마리가 폐사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오리의 시료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5일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26일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 1만1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오리 병아리를 판매하는 종오리 농장이어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매주 시료를 채취해 AI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관리 대상 농장 가운데 하나다.

이천시와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농장과 주변 지역에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장면 지역에 2곳의 방역대를 설치해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반경 3㎞를 보호구역, 10㎞를 예찰구역으로 지정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이천시 마장·대월·백사·호법면과 이천시내 지역이다.